

古代 狩獵圖의 樣式 기원 및 의미연구

—고구려 古墳壁畫의 수렵도의 양식성립 배경으로서—

李 玉 株

(서울대 미대 강사)

목 차

- I. 序 論
- II. 東·西方의 王家의 狩獵行事
- 1. 古代 서아시아의 「帝王의 사냥」
- 2. 中國에서의 范圍의 田獵

- III. 고구려 古墳壁畫의 狩獵圖
- 1. 王室 수렵행사의 원류 및 성격
- 2. 古墳壁畫의 狩獵圖의 양식적 특징

IV. 結 論

I. 序 論

우리나라 삼국시대 고구려의 古墳壁畫에는 그 주요畫題로서 狩獵圖가 대단히 많이 그려져 있다. 狩獵圖가 그려져 있는 古墳들로는 中國 吉林省 輯安縣 通溝지 방의 三室塚, 舞踊塚, 通溝제 20號墳, 長川 1號墳을 위시하여 평안도의 梅山里 四神塚, 龜神塚, 성총, 노산리 개마총, 藥水里 古墳 외에 황해도의 안악 1號墳 등이다.

이들 狩獵圖들은 生前에 墓主가 영위했을 여러 일상생활의 정경들과 더불어 대단히 활기차고 다양하게 그려져 있다. 壁畫의 생활모습들은 대개 室內와 室外의 정경으로 나눌 수 있는데, 室外생활모습에 으레 수렵광경들을 볼 수가 있다. 그런데 舞踊塚이나 梅山里 四神塚의 경우는 이 주제만으로 거의 한 벽면이 그려져 있어 여러 室外生活 모습중에서도 가장 주요한 테마로 다루어졌음을 알게 한다. 狩獵圖를 포함한 이들 室内外 生活모습들은 墓主의 生前의 신분 및 권위를 표상하는 일종의 기념적 繪畫로서의 성격을 갖으므로 이는 墓室을 장식하는 의미 이상의 기능이 깃들여 있는 것이다. 따라서 狩獵이란 活動도 당시 고구려 사회에 있어서 평범한 여흥이나 遊樂의 의미 이상의 내용을 갖고 있었음을 짐작하게 한다.

그리고 《三國史記》를 비롯한 古記錄들에 사냥

과 관련된 내용들이 적지 않게 눈에 띄어 이는 王室이나 귀족 상류계층에서 正史에 수록할만한 비중있는 행사였던 것임을 알 수 있다.

그런데 이 狩獵행사는 이미 近東地方의 古代 문화권, 즉 메소포타미아지방을 중심으로 이란·이라크 고원지대의 고대유적지에서 王의 사냥모습을 중심으로 다양한 祭典的 행사를 주제로 한 부조들이 출토되고 혹은 공예품들이 세상에遺存되고 있기 때문에 이 지역에서는 이같은 행사가 일찍이 확립된 듯하다.

하지만 中國에서도 이미 殷周時代부터 狩獵에 관한 기록이 산견되기 시작하고 春秋·戰國時代를 거쳐 秦·漢代에 들어오면 각종 美術遺品들에 圖紋으로서 대단히 다양하게 표현되고 있기 때문에 王家의 狩獵은 中國을 비롯한 고대 東洋 社會에서 대단히 뿌리깊은 문화임을 알게 한다.

따라서 당시의 이와같은 遺品들을 통해 볼 때 古代 東·西方 간에는 狩獵을 골간으로 하는 유사한 文化가 共存하고 있었던 것이다. 그러므로 우리나라 삼국시대중 유일하게 壁畫로서 狩獵圖를 남기고 있는 고구려를 중심으로 그 원류가 된다고 볼 수 있는 古代 먼저 近東의 「帝王의 사냥」행사와 中國의 中原王朝의 田獵行事들의 성격을 여러 유물과 기록을 통해 고찰해 보기로 한다. 또한 고구려의 수렵의 성격을 살펴서 大陸과의 그것들과 어떠한 상이점·유사점이 있는 지 비교해 보기로 한다.

II. 東·西方의 王家의 狩獵行事

1. 古代 서아시아의 「帝王의 사냥」

고대 서아시아에 있어 王家의 주요행사로서의 사냥의식은 대단히 일찍부터 그 의미가 확립되어 있었던 듯하다. 狩獵에 관한 내용을 담은 초기 遺物로서 기원전 3100년경으로 추정되는 우르크출토 「사자사냥 기념비」(圖 1)는 메소포타미아지방의 초기왕조시대(기원전 3000년~기원전 2340년)보다도 더 거슬러 올라가는 原史時代에 해당하는 遺品이다.⁽¹⁾ 평평하게 다듬은 큰 석괴에 사자사냥 장면이 上·下로 나뉘어 부조로 표현되어 있는데, 사냥꾼의 머리에 띠(hairband)를 두르고 있는 것에서 그 신분이 王으로 추정된다.⁽²⁾ 王의 사냥이 세속적 행사로서 큰 의미를 지닌 것이었기 때문에 이러한 기념비가 제작되었을 것이다.

이 같은 王의 사냥행사에 대한 규모와 성격을 구체적으로 알 수 있는 것은 기원전 7세기에 들어와서 부터이다.

古代 앗시리아의 수도 쿠윤지크의 宮殿址에서 출토된 앗슈르바니팔王시대(기원전 669년~629년)의 일련의 부조물 중에는 특히 王의 狩獵에 대한 내용의 전모를 알 수 있을 만큼 여러 장면이 묘사되어 있다. 圖 2는 王의 수렵장면 중 가장 중심적인 것인데, 王이 활과 창을 소지한 신하들과 함께 마차를 타고 달려드는 사자에게 창으로 일격을 가하는 순간을 대단히 박진감 넘치고 생생한 장면으로 묘사해 놓았다. 앗시리아王의 사자사냥은 이 행사를 위해 미리 준비해서 사육해온 사자들을 王家의苑안에 방류시켜 놓고 방阱을 든 병사들에 의해 둘러싸인채 치루어지는 행사인 듯하다. 왜냐하면 이 부조들 중에는 그러한

내용을 설명해 주는 여러 장면들이 있기 때문이다. 이를테면 우리를苑안에 들어와 사람들이 사자의 위해로부터 극히 조심하면서 문을 여는 장면도 있다. (圖 3)

또한 같은 곳에서 출토된 유품중에는 王家의苑을 묘사한 판식부조들이 있는데 여기에는 王家의苑에서 사육되는 동물들의 평상시의 평화로운 풍경이 묘사되고 있다. 圖 4는 각종 식물들이 자라고 있는苑안에 일꾼인 듯한 사람이 훈련된 獵犬들을 데리고 행진하고 있고, 圖 4는 역시 圖 4와 같은 식물들이 묘사되고 있고, 사육되는 사자가 서 있거나 잡들고 있다.

이 일련의 부조물들을 살펴보면 이런 종류의 狩獵은 野外의 들판이나 숲속에서 미지의 동물을 잡는 행위가 아닌, 행사자체가 일정한 계획하에 치밀하게 이루어지고 있는 公式적인 것임을 알 수 있다. 이들 부조들은 대개 王座가 있는 부근이나 宴會場과 같은, 王宮에서도 중요한 곳에서 출토되고 있어⁽³⁾ 이 수렵행사가 종교의식은 아니어도 다분히 式典의 일부였다고 추정된다.

이러한 狩獵을 통한 王의 灌尊의식은 서아시아일대에서 일관된 의미를 갖고 여러 지역에 그 전통이 확산된 듯하다. 기원전 6세기 이란의 서남부주 파르스지방에서 발홍한 아케메네스朝의 미술에서도 王의 수렵장면을 묘사한 유품들이 보인다. 圖 6은 銀으로 만들어진 방阱의 狩獵文飾金具이고 圖 7은 순금의 狩獵文劍鞘로서 대개 기원전 7세기에서 기원전 5세기에 걸쳐 제작된 것으로 추정된다. 이것들은 소위 옥서스(Oxos)遺寶라 불리우는 것들이다.⁽⁴⁾ 古代 아케메네스朝은 기원전 3세기 알렉산더大王에게 멸망당할 때까지 시르다리아·아무다리아 일대를 중심으로 오랫동안 중앙아시아를 지배한 王朝이다. 이

(1) 『古代西アジア美術』, 大系世界の美術 2, p. 85, 學研, 1981.

(2) 『古代西アジア美術』 p. 72, p. 69 圖 15 참조, 앗카드王朝(기원전 24~기원전 23세기)의 앗카드王의 브론즈頭像 참조.

(3) 『古代西アジア美術』 p. 103.

(4) 옥서스(Oxos)遺寶 : 아무다리아遺寶라고도 함. 1877년 옥서스 河畔에서 발굴된 기원전 6세기~기원전 2세기의 177점의 金銀제공품과 1,300여점의 石器들, 현 大英博物관과 빅토리아·앨버트미술관에 소장되어 있음. 유목민의 戰士像을 打出한 黃金板, 金製四頭馬車 모형, 양끌이 山羊의 머리로 된 金製腕輪, 銀製인물상 외에 홀륭한 미술품이 많다. 이들은 메디아와 아케메네스朝의 미술, 現地의 그레코·박트리아의 美術, 특히 스키타이 미술도 있어 중앙아시아 고대미술사상 귀중한 자료들이다. 《新潮世界美術辭典》, 下卷, 新潮社版.

王朝의 공예는 黃金의 시대를 이루어 金이나 銀으로 제작된 用具들은 호화의 극치를 이루었다고 한다. 이 일련의 순금공예품들에도 騎馬武士들이 사자나 양을 쫓고 있는 장면들이 묘사되어 있어, 당시 王家를 상징하고 또한 가장 존귀한 주제로서 獵獵장면을 세겨 넣은 것으로 생각한다.

아케메네스朝가 알렉산더大王에게 멸망당하고 부터 서아시아 일대는 기원후 3세기 이란고원을 중심으로 사산조 페르시아王國이 서기까지 그리 이스, 로마문화의 편향인 박트리아나 파르티아 등 그레코 헬레니즘문화가 확산되어 近東지방의 고유한 습속이나 전통적인 성격이 많이 흐려졌다. 그래서인지 그간 獵獵圖를 주제로 한 유품은 거의 눈에 띄지 않는다.

사산朝 페르시아(226년~651년)는 박트리아, 파르티아王國의 문화를 배격하고 7세기 이슬람의 진격에 굴복하기까지 약 400년간 강한 중앙집권적 체제 하에 농업, 편상무역으로 안정된 경제기반을 쌓았다. 또한 北은 중앙아시아, 東은 인도, 서쪽은 메소포타미아 남은 페르시아만에 이르는 광대한 영토를 차지한 王國이었다.⁽⁵⁾ 그들은 북변에 위치한 실크로드를 타고 東·西方의 상품과 예술사상, 양식, 기술을 유입했는데 서쪽으로 접한 로마(비잔틴)제국과 동쪽의 웨타일·쿠샨王朝와의 접촉(전쟁)으로 극히 세계성·국제성이 강한 문화를 형성했다.

이 사산朝 美術은 뒷 章에서도 다시 자세하게 서술하겠지만 中國 唐에 國際的 文化형성에 서방적 요소로서 그 영향을 크게 미쳤다. 그래서 中國을 비롯한 우리나라 新羅의 古墳 출토품, 日本 奈良時代 正倉院 遺品 중에는 여하한 경로를 거쳐 수입되었을 것으로 추정되는 물품들이 적지 않다.⁽⁶⁾

사산朝 美術의 본질은 「諸王의 王」을 위해 만

(5) 『The Cambridge History of Iran』 3(2) 〈The Selucid Parthian and Sasanian Periods〉 〈Chapter 9. Sasanian Art〉 pp. 1055-1129. Ehsan Yarshater편, Cambridge University Press, 1986.

(6) 이 관계 주요論文으로는

新羅: 金元龍, 〈古代韓國과 西域〉《美術資料》제34號, 84. 국립중앙박물관, 檻寧洞, 〈新羅人の 美意識—北方美術과의 관계를 중심으로〉, 《新羅文化祭學術發表論文集》第六輯.

日本: 長澤和俊, 《東西文化の交流》〈第7章, 唐と西域と日本〉 Ryoichi Hayachi, 《The Silk Road and The Shoso-in》, Heibonsha, 1975.

(7) 註 5참조.

(8) 《古代 西アジア美術》, 杉村 棟, 〈ササン朝の美術〉 pp. 206-209.

(9) 杉山二郎, 〈樂獵考〉《朝鮮學報》第60輯.

들어진 것으로 그 궁정을 중심으로 발달한 것이다.⁽⁷⁾ 따라서 호화로운 생활의 일면을 갖는 황후, 귀족의 취미를 반영하고 帝王의 권위를 과시할 의도를 숨기지 않고 있다. 그러한 성격을 가장 단적으로 들어내주는 이 시대 중요한 미술모티브가 곧 ‘帝王의 사냥(Royal Hunting)’인 것이다.

이 帝王의 사냥모티브는 당시 왕성하게 만들어진 수많은 銀器들과 磨崖부조에 주로 많이 남아있다.

圖 8은 4세기 샤프르 2세(309년~379년)의 사자사냥을 묘사한 것이고 圖 9도 역시 4세기에 해당하는 帝王의 사자사냥 장면인데 둘다 銀製로 된 盤들이다. 이들 사냥장면은 대개 수렵이 이루어지는 자연의 배경을 일체 생략하여 전체 효과가 더욱 두드러지는데, 圖 8의 銀製盤은 부분적으로 금도금을 하여 색채적 단조로움을 깨고, 동시에 입체감을 높혀주고 있다.

사산朝 페르시아의 帝王의 사냥 銀製盤에서 우리의 흥미를 가장 끄는 점은 바로 帝王의 사냥자세이다. 대개 帝王은 몸을 돌려 활을 쏘는 反身射의 騎馬像이거나 立像의 모습으로서 사자, 표범, 맷돼지, 야생산양, 사슴 등의 포획물을 쫓는다. 때로는 검, 창으로 맹수를 상대하면서 화살을 쏘고 있고 어느때는 투망을 사용한다.⁽⁸⁾

서양의 미술사가들은 이렇게 품을 돌려 활을 쏘는 자세를 일명 ‘파르티안 샷(Parthian Shot)’이라 부르고 있고 日人학자 杉山二良도 이 용어를 쓰고 있다.⁽⁹⁾ 이러한 자세는 다름아닌 우리나라 고구려의 舞踊塚을 위시한 여러 古墳의 獵獵圖에서도 적지 않게 나타나기 때문에 이 자세의 양식적 원류관계를 반드시 규명해야 할 필요가 있다.

파르티아美術은 원래 고대 이란의 아케메네스

胡가 알렉산더대왕에게 봉파된 후 이 지방을 중심으로 번영했던 그리스계통의 헬레니즘化된 문화를 말한다.⁽¹⁰⁾ 파르티아인들은 스텝출신의 駒馬民族들로서 아르사시드(Arsacid)朝를 세우고 당시 수도인 크세노폰을 중심으로 서아시아의 大國으로서 아시아와 유럽을 잇는 실크로드 중개지로 번영하였다. 이들은 이미 中國의 漢에도 알려져 司馬遷은 그의 저서《史記》에 〈安息國〉이라 써 넣고 있다.⁽¹¹⁾

그런데 筆者가 조사한 바로는 이 시기의 파르타이 미술유품 어떤 것에서도 정작 駒馬反身의 자세는 보이지 않는다. 그 주요유품들로는 화폐인 동전(coin)들을 중심으로 宮殿址, 石彫잔편, 암벽부조, 青銅像들이 있는데⁽¹²⁾, 동전의 경우 한 면엔 주로 통치자의 얼굴이 묘사되어 있고, 뒷면에는 그리이스어로 王銘이 새겨져 있으며 그 옆에 큰 활을 들고 앉아있는 王의 모습이 일반적이다.⁽¹³⁾ 간혹 암벽부조에는 駒馬像은 있어도 反身射의 자세는 보이지 않는다. 이 명칭의 유래에 대하여 서양의 미술사가들이나 杉山二郎은 아무런 史的인 배경설명이 없어 왜 사산朝의 ‘帝王의 사냥’ 자세가 파르티안식이라 명명되었는지 알 수 없다. 뒷 章에서 자세히 後述하겠지만 이미 中國의 경우에는 戰國時代末 古銅器에 그 형식이 보이며 漢代에는 그 모티브가 정형화되어 수많은 미술공예품에 출현하고 있다.⁽¹⁴⁾ 그런데 戰國時代의 銅鏡이 이 지방일대에서 출토되고 있어 일찍부터 東·西方간의 文物교류가 있어왔음을 알 수 있다.⁽¹⁵⁾ 그리하여 기원전 2세기 이후 漢代부터 적극적으로 타개된 실크로드의 경로를 타고 古代 東洋의 여러 문물들과 함께 駒馬反射의 모티브도 서방으로 유입되었을 가능성도 있다.

여하튼 이러한 駒馬反射의 자세가 대중을 이루는 ‘帝王의 사냥’ 銀銀皿들은 단지 王의 사냥 모습만 표현되어 있어 총체적인 儀典的 성격은 알 수 없다.

(10) 『The Cambridge History of Iran』 <Chapter 28, Parthian Art> pp. 1027-1054.

(11) 司馬遷, 《史記》大宛列傳.

(12) 『The Cambridge History of Iran』 <Chapter 28>, <Chapter 8(a) Parthian coins> 図 49~79 참조.

(13) 上揭書, <Chapter 8(a) Parthian coins> 図 1~9 (Parthian coins) 참조.

(14) 木論文 pp. 45~46 참조.

(15) 파자리크(Pazyryk) 고분(소련러시아공화국 알타이 지방) 출토본, (기원전 5세기~기원전 2세기 주 77 참조.

그런데 이란 시북부 게르만야 부근에 있는 山裾의 암벽에 6~7세기 경에 開鑿된 것으로 추정되는 타·키·부스탄 大洞 유적지(圖 10)가 있는데 이곳에 帝王의 狩獵장면 일체가 부조로 묘사되어 있어 王의 狩獵을 통한 祭式행사의 전모를 알 수 있게 한다. 이곳에는 2개의 大小洞窟이 있고 그 앞에는 나무숲으로 둘러싸인 池塘이 있다.

이 洞窟의 여리부조 형식과 石窟주변의 秘苑과 같은 자연환경 등에서 이 大洞에 특별한 의미가 부여되어 있고 그래서 이곳을 특별한 의식적인 목적으로 이용되었으리라 추정되는데, 大洞의 狩獵場부조들에서 더욱 그러한 성격을 짐작하게 한다.

大洞의 오른쪽 壁은 帝王의 사슴사냥장면(圖 11)이다. 사방이 栅·幕으로 둘러쌓인 獵場의 중앙을 향해 오른쪽에서 몰이꾼들이 王의 수렵 포획물인 사슴무리들을 쫓고 있고, 장면의 윗쪽에 표현된 樂士들의 음악소리를 들으며 파라솔 밑에서 사냥을 준비하는 王의 모습이 보인다. 벽면 거의 중앙에 말을 타고 활을 당기는 王의 제 2의 모습이 있고, 하단에 수렵을 끝내고 獵場을 퇴장하는 王의 제 3의 모습이 크게 묘사되어 있다. 왼쪽에는 죽어 넘어진 포획물들을 실은 낙타들이 獵場을 떠나고 있다.

洞窟의 왼쪽벽은 帝王의 돼지(豬)사냥 장면(圖 12)이다. 이 장면은 약간 특이한데, 사냥이 이루어지는 곳은 池塘인 듯하다. 왼쪽 상단에는 樂士들이 배를 타고 음악을 연주하고 있고 그 밑으로는 코끼리를 탄 몰이꾼들에 쫓긴 돼지들이 물려 나오고 있다. 중앙에는 王이 시종들을 데리고 활을 쏴 사냥을 하고 있다. 연못에는 수초들이 무성한데 그 사이에서 역시 코끼리를 탄 시종들이 잡은 돼지들을 거두고 있다.

이 타·키·부스탄 大洞의 일련의 狩獵場들에서 기원전 7세기 고대 앗시리아 王朝에서 보았

던 王의 사냥의식이 기원후 6~7세기 사산朝末까지 일관된 형식과 내용을 갖고 발전해 온 것을 알 수 있다.

古代 서아시아 여러 王朝의 역사적 遺品에 표현되어 있는 수렵행사는 王이 하늘로부터 神性을 부여받고 그 용맹성을 과시하는 일종의 祭祀的 성격을 갖고 발달한 듯하다. 이러한 式典행사를 위해서 특별한 장소가 설치되고, 사냥물인 야생동물들이 따로 사육되며 제식행사 자체는 뜻병사와 신하들이 지켜보는 가운데 치루어진다. 이는 王家의 正義·영광 등을 기원하는 일종의 축제와 같은 기념비적 성격이 짓들어 있음을 짐작하게 하는 것이다.

2. 中國에서의 范圍의 발달과 田獵

사람들이 獵獵을 하게 된 최초의 실용적인 동기는 肉食이나 모피에 있었다. 그러나 시대가 내려오면서 獵獵은 그 기능이 확산되어 농작물의 보호, 제사의 공물, 軍陣의 연습, 心身의活力과 같은 여러 부차적 목적도 지니게 된 듯하다.

中國 初期 王朝인 殷代의 주요기록인 甲骨文에 이같은 내용이 아주 다양하게 보인다. 이를 甲骨文의 내용에 의하면 당시의 獵獵은 殷王이 점을 쳤던 중요한 내용중의 하나로 흔히 軍士活動과 동시에 거행되었다고 한다.⁽¹⁶⁾ 이때 얻은 사냥감은 제사에 바칠 수도 있고 野獸를 상대로 軍事의 변화를 연습할 수도 있으며, 心身의 오락으로 즐길 수도 있었기 때문에 殷代의 수렵은 그 결과의 길·흉에 대하여 다른 제사와 맞먹을 정도로 빈번하게 점을 쳤던 일 중의 하나였다고 한다.⁽¹⁷⁾ 그 사냥의 대상도 고라니, 여우, 노루, 사슴, 맷돼지, 들소들이며 심지어 코끼리, 코뿔소, 호랑이들도 보인다.

殷·周代에는 수렵하는 일은 특히 ‘田’이라 불렸다.⁽¹⁸⁾ 이는 곡물을 심은 農地에서 들짐승을 잡거나 물아냄으로써 곡식을 밟거나 뜯어먹지 못

하게 하기 위한 테서 나온 文字이다. 이것으로 이때의 사냥은 또한 耕地보호의 보조작업중 하나였다는 것도 알 수 있다.

이렇게 왕성했던 殷代의 獵獵, 특히 王의 田獵行事에 대한 내용은 다음 기록을 보면 더 구체적으로 알 수 있다.

司馬遷의 《史記》殷本記를 보면 殷의 마지막 임금 주(紂, 기원전 1027년 자살)는 ‘沙丘의苑臺를 더욱 넓히고 野獸, 飛鳥들을 많이 모아 그 안에 넣었다(益廣沙丘苑臺, 多取野獸飛鳥置其中)’는 내용이 있다. 이 글에서 추정해 보건대 殷 王室에서는 수많은 야생동물과 새들을苑 안에 모아 기르게 하고 사냥행사에 이를 제공케 한 것 같다. 이는 인공獵場의 성격을 분명히 떤 것이다.

원래 ‘苑囿’란 뜻을 살펴보면苑은 畜獸를 키우는 곳을 일컫고 圃는苑에 담(垣)을 친 것을 말한다.⁽¹⁹⁾ 또苑과 圃는 같은 뜻으로 옛날에는 圃라 했고 漢代에는苑이라 일컬었다. 곧苑囿는 사냥행사를 위해 일정한 지역에 야생畜獸를 키우고 그 둘레를 담을 친 곳을 말한다. 이것은 앞에서 살펴본 바, 古代 西아시아의 王家의 獵場과 성격이 유사하다.

殷王 紂는 이같은 큰 규모의 獵獵用苑을 마련하고 그 안에 四時遊樂의 조망용으로 높은 臺를 축조하여 그곳에서 연일 酒池肉林으로 방탕한 생활을 하다가 周에게 멸망당하고 만다.

西周時代에는苑은 특히 ‘圃’로 불리웠다. 이 때에는 이를 관리하는 ‘圃人’도 두고 있는데⁽²⁰⁾, 周王의 攻獵 유락용으로 기르는 百獸를 관리하는 직책이다.

이같은苑囿는 春秋 戰國時代에 들어오면 각국의 諸侯들은 폐권자의 신분과시로서 저마다 앞을 다투어 큰 규모의 獵場을 축조, 私有하고 있다.⁽²¹⁾ 齊國의 경우를 보면 수도 臨淄의 城內 북쪽에 광대한 기단이 있고 그 위에 桓公臺라

(16) 姚孝遂, 〈甲骨刻辭狩獵考〉《古文字研究》6, 1981, 許進雄·洪熹譯 《中國古代社會》p. 59에서 재인용, 東文選, 文藝新書 40, 1991.

(17) 尹乃鉉, 《商周史》p. 45, 朝鮮학술총서 인문사회과학 3.

(18) 許進雄, 洪熹역, 《中國古代社會》p. 65.

(19) 《孟子》, 「文王之圃」, 「苑囿」의 글귀가 보인다.

(20) 《周禮》地官, 「掌圃遊之獸禁, 牧百獸」.

(21) 이를테면 魏에는 溫圃, 魯에는 郎圃, 吳國엔 長洲苑, 越國엔 樂野苑 등이 있었다 함. (中國美術全集編輯

불리우는 높은 土臺가 있다. 이곳은 원래 臺射
건축이라 불리우는 高樓의 토대로서, 귀족들은
이 위에서 제사를 지내고 景色을 즐기며 주연을
열고 활로 새를 쏘며 사냥을 했다고 한다. 당시
에는 遊樂用 離宮과 같은 곳도 있어 이곳에서 군
주들은 친구한 동물들을 키우고 높은 臺 위에서
遊樂하며 연회를 벌린 것이다.⁽²²⁾

이 같은 광경은 戰國時代 古銅器에 문양으로서
종종 등장한다. 이 당시의 青銅祭器들은 殷周代
의 그것들에 비해 현실생활에 바탕을 둔 사실적
문양들이 서술적이면서도敘事性이 짙은 양식을
남기고 있다. 그같은 題材로서 특히 ‘狩獵圖’가
눈에 띄어 흥미롭다.

春秋末·戰國初로 추정되는 그 早期형식을 河
北省 唐山 賈各莊에서 출토된 青銅象嵌狩獵文壺
(圖 13)와 출토지 불명의 採桑狩獵文鋗(圖 14)에
서 볼 수 있다. 賈各莊 출토 青銅壺의 경우 문양
의 대체적인 구도가 사냥물인 들소, 코끼리, 새
들과 狩獵人, 獵犬들이 서로 어우러져 격투를 벌
이고 있다. 이 장면의 獵人중에는 騎馬武士의 모
습이 보여 춘추·전국시대에 騎馬兵이 이미 존재
하고 있었음을 알 수 있게 한다.(圖 13의 문양
전개도 참조) 원래 古代中國에서 王 및 그에 비
금가는 높은 신분을 지닌 자는 전투나 狩獵을 하
는 경우 대부분 몇 마리의 말을 맨 馬車를 탄다.
馬車를 타고 狩獵을 하는 광경은 戰國時代 前期
에 해당하는 古銅器의 圖紋에는 일반적인 모습
이다(圖 14).

따라서 이 같은 말을 직접 타고 있는 武人은 中
國에서는 대단히 이례적인 것인데, 中國의 공식
기록에서의 騎兵의 出現은 기원전 4세기 初이다.
《史記》趙世家條를 보면 戰國時代 趙나라의 武靈
왕이 기원전 307년 胡服차림을 하고 말타고 활
쏘기를 시작하여 北方 유목민족에 대항하였다는
기록에서⁽²³⁾, 이후 그 밖의 귀족들도 이를 모방,
戰場의 주력이 점차 馬車와 보병에서 騎兵으로

변해갔을 것으로 추정하고 있다.

또한 이 賈各莊 출토 青銅器 문양에는 코끼리도
보인다. 코끼리는 《左傳》에서 보면 楚昭王이
기원전 506년 코끼리군을 이용하여 吳軍을 격파
한 戰功기록이 있어⁽²⁴⁾, 춘추시대 말기에 中國의
남方에 적지 않은 코끼리가 있었음을 알게 한다.

春秋·戰國時代 王家 및 諸侯들의 狩獵行事는
일찌기 祭典의 성격을 갖고 확립되어 있었다. 당시의
禮儀活動은 燕禮, 射禮, 廩禮 3부분으로 조
성되어 있었다.⁽²⁵⁾ 燕禮는 일종의 祭酒행사로 향
연직 성격을 갖는 것으로 대개 路寢(正堂)에서
이루어지며 鐘磬之樂, 즉 가무·음악이 결들어
진다. 射禮는 환을 쏘는 행사이고, 廩禮는 中國
古代의 狩獵活動이다. 특히 이 廩禮는 봄의 狩
獵을 일컫는다. 西周와 春秋·戰國時代의 廩禮은
왕왕 군사검열 및 연습과 결합되어 진행되었다
고 한다.⁽²⁶⁾ 《谷強傳》昭公 8年條를 보면 「因蒐獵
以習用武事, 禮之大者也」라 하고 있어 당시 諸
侯들의 폐권다툼으로 軍事文化를 이루고 있던 社
會상에 廩禮의 의미가 어떻게 현실화한 것인지
알 수 있다.

이렇게 군사활동과 더불은 봄사냥에 대한 의미
및 목적은 다음 王朝인 秦漢代의 古禮행사를 기
록해 놓은 《禮記》에서 그 내용을 아주 구체적으
로 밝히고 있다.

“季春(3月)에는 들에 불(火)을 놓는데 이것은
敷(수풀·잡초)를 제거하고 狩獵을 개최하며 동시에
軍隊를 연습하기 위함이다. 즉 들에 불을
놓은 뒤 兵事와 武器의 겸사를 행하고 부대의 성
원의 수를 확인한다. 그리고 군주 炎社(國土
의 神)에 서약하여 國家의 福利를 기원, 전투의
훈련을 행한다. … 또 이 연습장(狩獵場)에서 烏
獸를 사냥하여 포획물을 경쟁하고 군대의 명령과
규율을 엄수하는 상태를 시찰한다. 이는 狩獵에
대한 上卒의 마음을 良治하려는 것으로 포획물을
탐나게 하는 것은 아니다. 이렇게 연습을 하면

委員會, 《中國美術全集》, 建築藝術編 3, 園林建築, 新華書店 北京發行, 1988. 7. 潘谷南 〈中國古代的園林
藝術〉 pp. 2-3.

(22) 尹乃鉉, 《商周史》

(23) 司馬遷, 《史記》卷 43, 趙世家第十三, 十九年春正月條.

(24) 許進雄·洪亮譯 《中國古代社會》, p. 61.

(25) 高木森, 〈春秋·戰國時代의 圖紋藝術〉, (4), 《月刊 故宮文物》No. 14, pp. 71-79. 國立故宮博物院.

(26) 尹乃鉉, 《商周史》p. 162.

전쟁에서는 이기고 神에게 제사하여 福利를 얻을 수 있다.”⁽²⁷⁾

이와같은 莊禮를 포함한 古代의 三禮행사를 묘사한 古銅器의 文樣으로서 그 양식이 진일보하여 구성내용도 치밀하고 짜임새 있게 표현된 것이 기원전 5세기 후반으로 추정되는 狹西省 鳳翔高王寺출토 象嵌射宴壺(圖 15)와 四川省 成都 百花潭 출토 象嵌宴樂水陸功戰紋壺(圖 16)이다. 圖 17은 河南省 輝縣 琉璃閣출토 銅壺 잔편인데, 三禮의 행사장면이 정형화된 문양이 아니고, 비록 구도로는 산만해도 자연평지에서 행해지는繪畫的 단계를 보여주고 있어 흥미롭다. 특히 왼쪽에는 여러 동물들이 있는데 일부 擬人化된 모습도 보여 다음 統一王朝인 漢代의 정형화된動物文의 계보를 짐작하게 하는 주요자료라 하겠다.⁽²⁸⁾

이 같은 祭典행사로서의 莊禮를 배경으로 각국 諸侯들의 私獵場인 莊園을 중심으로 행해진 春秋·戰國時代의 화려하고 장대한 수렵행사는 다음 王朝인 秦漢代에 들어오면 國家 및 帝王의 권위와 王朝의 영광을 기리는 상징적 행사가 되어 그 규모도 엄청나게 커지고 皇室의 獵場의 성격을 갖는 莊도 수도부근에 방대하게 자리를 잡게

된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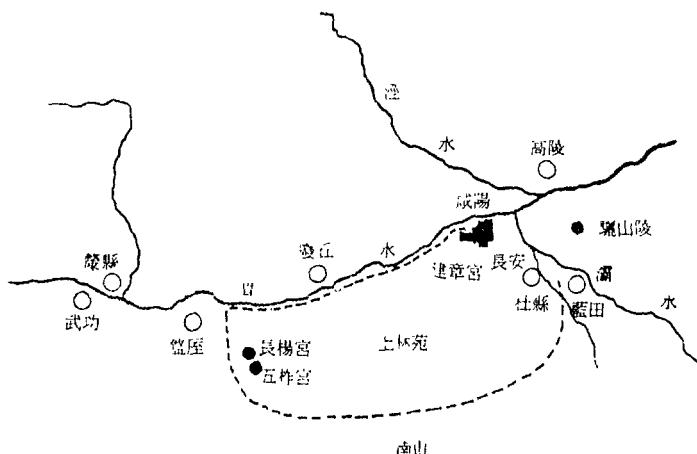
이때에 가장 특기할 만한 사항이 王家의 獵場의 성격을 갖는 上林苑의 조성이다.

秦代 始皇은 일찌기 논의하여 종래의 莊園을 넓혀서 동쪽은 函谷關(河南省 灵寶縣 黃河 유역에 있는 협준하기로 유명한 풀짜기)에 이르고 서쪽은 雍州(지금의 섬서성 북부와 감숙성 서북부지방), 陳倉에 이르도록 광대한 지역을 禁苑으로 삼으려 했는데 儂旂이란 신하가 諷諫하여 말리고 있다.⁽²⁹⁾ 하지만 후에 이를 개설하여 上林苑이라 하였다. 기원전 206년 秦이 멸망하면서 莊도 일시적으로 폐했으나 漢武帝 때(기원전 141년~기원전 87년) 다시 확장, 개조를 한다.

이때의 上林苑은 그 위치가 당시의 수도인 長安의 서북부로 그 幢長이 300里에 달했다고 하는데, 동은 藍田에 이르고 서쪽으로는 長楊宮, 五祚宮에 이르며 南은 南山에 놓고 북은 渭水에 달한다. (上林苑의 위치지도 참조)

漢代의 上林苑은 일종의 독립된 공간으로서 세상에 알려진 모든 動·植物들을 수집하여 원시적 야성세계(wild nature)로서 異國的 분위기로 가득찼다고 한다.⁽³⁰⁾

이 즈음의 武帝는 漢과의 오랜 숙적인 匈奴를



〈漢 上林苑 위치도〉

(27) 《禮記》郊特牲, 第十一。“季春出火, 為焚也, 然後簡其車軌, 而歷其卒伍, 而君親誓社, 以習軍旅, 左之右之, 坐之起之, 以觀其習變也。而流示之禽, 而鹽諸利, 以觀其不犯命也。求服其志, 不貪其得。故以戰則克, 以祭則受福。”

(28) 長廣敏雄, 〈周漢代의 動物圖像의 諸相〉《中國美術論集》, 講談社, 1984.

(29) 司馬遷, 《史記》, 滑稽列傳.

(30) 長澤和俊, 閔丙勲譯, 《東西文化의 交流》, 민족문화사 p. 128.

복속시키는 과정에서 기원전 139년에 파미르 以西에 있는 大月氏에 파견된 張騫이 기원전 126년에 귀국함으로서 西域으로의 公的인 교통로가 처음으로 타개된다. 그후 대장군 衛青과 騃騎장군 霍去病으로 하여금 오르도스 河西지방으로부터 匈奴를 蒼아내고 2회에 걸친 大宛(지금의 페르가나)원정으로 기원전 104년 경에 이르면 西域諸國을 복속시키게 된다. 이후 漢의 위세가 葱嶺(파미르고원)을 넘어 전 西域에 미치게 되는데 이들 西域諸國으로부터 漢王室에 받쳐지는 각종 진귀한 異國風物들은 武帝의 끝없는 異國취미를 북돋아 주었다고 한다.

班固의 《漢書》西域傳 밀미에는 실크로드를 둘러싼 왕성한 東西교역과 그로 인한 東·西珍貨가 漢에 모인 상황이 기록되어 있을 뿐만 아니라 武帝의 外苑인 上林苑의 西域으로부터 들어온 각종 진귀한 동·식물들에 대하여 소상하게 기록되어 있다.

“武帝의 世는…天下는 殷富하고 財力은 여유가 있으며 土馬도 강력하였다.… 天馬·蒲陶를 들고 곧 大宛, 安息(파르티아)에 통하였다. 이 이후明珠, 文甲, 通犀, 翠羽(푸른 빛이 나는 새의 깃)의 진품은 後宮에 넘치고, 蒲梢, 龍文, 魚目, 汗血의 馬는 黃門(궁성의 御門)에 가득찼으며, 巨象, 獅子, 猛犬, 大雀의 무리는 外苑에 있고, 각지의 珍品은 四面으로부터 이르렀다. 이에 넓게 上林을 열고 昆明池를 파며 千門萬戶의 집을 짓고 神明通天의 臺를 세우며, 많은 帳을 만들고 장식은 隋侯의 美珠, 和氏의 璧을 사용하였다. 天子는 斧形문양이 들어있는 옷을 입고 翠色의 上衣를 입었으며 玉으로 된 안석에 몸을 기대고 그 안에 있다. 酒池肉林을 배풀어 四夷의 客을 대접하고 巴渝의 幻術, 西海의 磯極, 巨獸(漫衍), 魚龍(물요술), 角抵의 花이를 하여 모인 사람에게 구경시켰다.”⁽³¹⁾

天子의 後園격인 上林苑의 규모 및 그곳에서 서식하는 각종 진귀한 동·식물의 종류, 여러 離宮과 別館의 위치, 天子의 棱獵(나부로서 짐승을

둘러막고 사냥하는 것)행사에 대한 구체적 방법, 이곳에서의 가무·음악에 대한 遊樂行事 등에 대한 내용을 소상하게 밝히고 있는 것이 司馬遷의 《史記》司馬相如列傳중의 〈子虛之賦〉이다.⁽³²⁾

그 내용은 天子와 諸侯들의苑囿의 규모 풍광 및 校獵행사를 推將하고 있는 듯하지만, 사실 그 말기엔 이들의 엄청난 규모의 遊獵行事에 따른 백성들의 피해를 은근히 諷하는 것으로 되어있다.

이같은 漢代 皇家의苑囿의 광경 및 獵獵은 당시로서는 가장 상급계급의 온갖 호사를 다한 행사중에 하나였던듯 당대의 여러 미술·공예유품에 주요 畵題, 장식모티브로 표현되고 있다.

河南省 定縣 122號 漢墓에서 출토된 金銀錯狩獵文 銅車飾(圖 18)은 당시 皇家의 獵獵을 주제로 하여 표현된 대표적 장식품이다. 그 용도는 轛蓋의 竹管形 손잡이 부분으로 青銅재료에 金銀線나 片으로 문양을 상감해 넣은 것이다.⁽³³⁾

이 손잡이 장식은 獵獵圖를 주요주제로 하여 4단으로 나누어 각각 山岳과 雲氣로 배경을 설정해 넣고 사이사이에 각종 瑞獸, 禽類 등을 장식해 넣었다. 코끼리, 사슴, 토끼, 학, 각종 들새들, 龔龍, 天馬, 곰, 원숭이, 산양, 야생소, 멧돼지, 올빼미, 여우, 낙타, 공작 외에 기마인물 등등 일일이 열거할 수 없을 정도인데 눈으로 그 특징을 확연히 알아낼 수 있을 정도로 대단히 섬세하고 정교하다. 사실적이며 일견 과장적이기도 한 獸獸들의 형태는 생동감이 있고 多變하며, 神話·전설 속의 형상들도 대단히 아름답게 정형화시키고 있다.

이 金銀錯狩獵文 銅車飾은 사실 上林苑의 風光을 묘사했다는 증거는 없어도 그같은苑囿의 광경을 장식·문양화한 것임을 쉽게 추정할 수 있다. 코끼리나 낙타같은 동물은 당시 中國에서는 볼 수 없는 진귀한 異國產의 動物이며⁽³⁴⁾, 날개 달린 말이나 전통적 중국의 瑞獸인 龍이 날개를 달고 있는 모습 등에서 부분적으로 西方의 미술모티브의 전래를 알게 한다.

(31) 班固, 《漢書》, 卷 96下, 西域傳, 長澤和俊, 閔丙煦譯, 《東西文化의 交流》 p. 128 해석을 재인용함.

(32) 司馬遷, 南晚星譯, 《史記》司馬相如列傳, 乙酉文化社, pp. 641-671 참조.

(33) 史樹青, 〈我國古代의 金錯工藝〉, 《文物》1973, 1~6號 중 6期.

(34) 班固, 《漢書》, 武帝紀 漢武帝가 남해에서 짐승인 코끼리를 받았다는 기록이 보인다.

특히 제 2 단의 세칭 말을 타고 봄을 들려 활을 쏘는 反身射의 騎馬자세는 지금까지는 보이지 않던 새로운 모티브이다. 이 騎馬反身射의 자세는 前章에서 살펴보았듯이 기원후 3~4세기 사산조 페르시아의 銀皿器에 주로 표현되었던 帝王의 사냥모티브였다.

이 같은 자세는 중국에서는 前漢代 즉 기원전 2세기 후반경에 이미 그 형식이 정형화되어 나타난다. 漢代 미술에서 騎馬反身射의 원류가 될 수 있는 모습은 일찍이 기원전 186년 前漢初 湖南省 長沙에 있는 馬王堆 漢墓의 부장품에 보인다. 圖 19는 馬王堆 一號墓의 黑地彩繪棺에 묘사되어 있는 각종 瑞獸의 모습들이다. 流雲文 사이에 약 10여종의 동물들의 鼓琴, 舞踊, 狩獵의 모습, 혹은 말을 타고 구름을 달리는 모습인데 모두 擬人化가 되어있다. 당시 半人半獸의 진실적 형상들인 듯한데 圖 20은 그것들을 모두 모아놓은 것이다. 그중 상단부에 기린, 혹은 사슴의 모습을 한 짐승이 反身射의 자세로 달려가고 있다. 또한 하단부에는 말을 탄 모습이 보여 反身射의 자세로 騎馬형식과의 결합은 곧 가능했을 것이라 생각한다. 漢代 동물들의 이 같은 자세의 원류는 이미 앞에서 살펴본 戰國時代 후기에 속하는 琉璃閣출토 金器잔편(圖 17)의 원쪽 하단부에 보이는 擬人化된 동물의 활 듣 모습에서 살펴볼 수 있다. 어째든 漢代 動物文의 이 같은 형상에서 人間들의 反身射의 騎馬자세는 거의 같은 시기에 회화적 모티브로 정형화되어通用되었으리라 생각한다.

이 金銀錯 銅車飾의 제 2 단의 구도는 또한 우리나라 舞踊塚의 後室벽면에 그려져 있는 狩獵圖(圖 35)와 대단히 일맥상통한 점이 있어 주목된다. 漢代銅車飾의 경우 배경으로서의 山岳의 형태가 마치 선인장 같은 유기체형태로 길게 늘어져 표현되어 있고 군데군데 밤송이 같은 모습으로 山頭를 표현해 넣어 그 표현방법이 대단히 문양적인데 고구려의 舞踊塚의 경우 제작시기가 훨씬 내려와 地勢 표현이 좀더 진일보하여 자연스럽고 실감나게 산악의 표현이 이루어지고 있다. 이렇게, 산악 사이에서 狩獵이 이루어 지고 있고 동물들이 질주하는 광경은 銅車飾 眇獵圖와 무관하지 않음을 생각하게 한다. 또한 反身射의

騎馬人物의 모습도 고구려의 경우 服武 등 전체 인물모습이 완전 고구려화하였으나 사냥물을 향해 大弓을 겨루며 말을 타고 달리는 모습의 전체적인 생동감 넘치는 모습은 크게 다를 바가 없다.

고구려 舞踊塚의 狩獵圖가 이 같은 漢代 眺獵圖를 원류로 하고 있음을 더욱 구체적으로 뒷받침해 주는例가 바로 평양부근 옛 樂浪지방에서 출토된 것으로 추정되는 현 日本 東京藝大 소장품으로 중요문화재인 漢代 金銀錯 狩獵文 銅車飾(圖 21)이다. 내용의 내용과 구성형식이 河南省 定縣출토 銅車飾과 거의 대동소이한데 다만 표현상에 부분적인 지방적 특성이 보인다. 東京藝大소장 銅車飾의 경우 제 2 단의 騎馬人物의 얼굴, 服式 그리고 전체적인 모습이 좀더 크게 묘사되었고 세부묘사도 더 뚜렷하여 제작시기가 내려가는 것을 알 수 있다. 이 같은 유품은 아마 皇室소속 공예가의 솜씨인 듯한 定縣출토 銅車飾과 같은 紛本을 근거로 해서 지방郡國의 工匠들이 만들었을 가능성이 있다. 따라서 이 東京藝大소장 狩獵文銅車飾은 우리나라 舞踊塚을 비롯한 古墳壁畫에 수렵도가 그려지게 되는 배경으로서 繪畫史의 근거를 제공하는 중요한 자료가 된다 하겠다.

漢代에는 이 같은 銅車飾들 외에도 다른 미술품들, 즉 畫像石, 畫像磚, 각종 漆器工藝品들의 문양에도 狩獵圖가 일상적 주제로 등장하는데 대부분 여타 배경은 일체 생략하고 騎馬反身射의 자세만 두드러져 보인다.

예를 들면 河南省 洛陽 東趙에서 출토된 前漢代의 「獵人張弓畫像磚」(圖 22), 前漢末~後漢初로 그 제작시기가 추정되는 河南省 禹縣출토 「獵虎畫像磚」(圖 23), 역시 비슷한 시기로 보이는 洛陽 鄭州부근 漢墓출토인 空心畫像磚의 「騎馬反身射虎」(圖 24), 後漢代의 孝堂山 石祠 「狩獵畫像磚」(圖 25)들이 그것이다.

따라서 이미 漢代 初에 中國고유의 사상체계 속에서 정형화된 反身射의 자세가 일종의 胡俗化를 거치면서 騎馬反身射의 자세로 美術史上 성립되어, 漢代 이후 각종 공예미술품들에 수렵 모티브중 가장 전형적인 박진감 넘치는 題材로서 표현되는 듯하다.

이처럼 漢代 范圍를 중심으로 皇家의 권위와

영광을 기리는 상징이었던 狩獵行事는 다음 魏·晉 南北朝 時代에 들어가면 그 규모와 성격이 변모한다.

제왕의 范圍는 당시의 사상적 조류와도 무관하지 않아 그 성격이 달라지는데 이 시대의 귀족, 선비들 간에 신행되었던 玄學的 清談사상과 老·莊사상의 영향으로 范圍의 風格은 山水, 自然의 美를 추구하는 欣賞用으로서 이상적 형식미를 갖춘 圖의 형태로 변화한다.⁽³⁵⁾

따라서 수렵도의 모티브도 前代의 騎馬反身射의 모습만 정형화, 문양화되어 魏·晉代의 여러 미술품에 등장한다. 西魏代(535년~556년)로 그 제작년대가 추정되는 敦煌 249窟 北披局 벽화에 표현된 狩獵圖(圖 26)를 보면 활을 쏘는 騎馬反射의 자세는 中國 古來의 각종 神話의 주인공들과 함께 어우러져 그 역동적인 모습은 전체의 動的이고 장식적인 분위기의 효과를 더욱 배가시키는 주요부분으로 등장하고 있다. 漢代美術品에 보이던 工藝의 정형화된 모습에서 벗어나 활을 쏘는 자세의 자연스러운, 일견 과장된 운동감과 비례감으로 더욱 광활한 공간감을 연출시키고 있어 시기적으로 큰 격차없는 고구려 舞踊塚의 狩獵圖와도 비교가 된다. 돈황벽화에는 수렵의 장면들이 佛教的 說話を 주제로 한 그림들 속에서도 그 모습을 남기고 있어서(圖 27), (圖 28), 이 주제에 대한 古代 中國人들의 신호가 얼마나 컸던가를 알 수 있다.

이 狩獵모티브는 다음 唐代가 되면 東·西간의 文化的 遷遇를 이루는 가장 중요하면서도 흥미로운 美術史的 題材로서 등장한다.

실크로드를 통한 東西文化의 交流는 이미 기원전 2세기경 漢武帝때 파마르고원 以西의 교통로가 타개된 이후 魏晉 南北朝 이래로 그 왕래가 대단히 盛하여 中國 내부는 비록 전란에 시달리고 있었어도 東西간의 상품교역은 그칠 줄을 몰랐다. 이같은 상황은 統一王朝인 唐代가 되면

완전 개방되면서 당시 수도인 長安은 西域 여러 나라에서 온 상인, 풍물들로 온통 異國의 분위기를 이루었다.

唐代는 西域風, 특히 사산朝 페르시아 문화가 대단히 유행하였는데 開元(713~741년), 天寶年間(742년~755년)은 그 전성기라고 할 만하다.⁽³⁶⁾ 그러한 경향이 두드러지는 공예부분에서는 금은 세공, 상아세공, 피혁공예, 적물들에 특히 페르시아風의 意匠이 인기가 있었다 한다. 이러한 공예품들에 수렵도가 주요장식소재로 채택되고 있어 더욱 흥미롭다.

이들 狩獵圖가 응용·장식되는 唐代 공예품은 특히 금속공예품과 적물이다. 이중에는 器形 자체가 새로운 外來영향을 받았어도 문양의 전체적 모습은 여전히 중국적 특색을 그대로 유지하고 있는 것들이 있다.

日本 正倉院 南倉에 전하는 紫檀木 畵櫬 비파의 擬面을 장식한 수렵宴樂圖(圖 29)가 그 가장 대표적例이다. 이 비파의 형식은 이란에서 기원한 것인데⁽³⁷⁾, 제작년대가 대략 7세기경으로서 外來舶載品으로 추정한다.⁽³⁸⁾ 가죽에 붙은 바탕칠을 한 山水사이에서 호랑이를 수렵하는 장면과 포획물을 도살하는 광경, 野外에서 주연을 돋우는 음악을 연주하는 인물들이 上·中·下 3 단으로 나뉘어 선명하게 묘사되어 있다. 그림의 구도법, 인물의 양상, 山水의 표현 등은 古樣으로 中國의 六朝 아래의 옛 전통을 잊고 있어 山水畫의 형식발전이란 樣式史의 연구의 주요자료로서도 가치가 높다. 唐工藝品의 수렵문양에는 대개 사냥장면이 벌어지는 자연경관이 묘사되어 있다. 하지만 王의 권위를 가름하는 치열한 사냥장면이 아닌 金·초원의 부드러운 정경 속에서 마치 사냥꾼이 진승들과 일종의 유회를 하는 듯한 가벼운 분위기로 묘사되는 것이 이 시대의 특징이다. 西安 何家村에서 출토된⁽³⁹⁾ 狩獵文 高足銀杯(圖 30)를 보면 그 기형은 西方

(35) 中國美術全集編輯委員會, 《中國美術全集》, 建築藝術編 3, 園林建築 潘谷西 〈中國古代的 園林藝術〉, pp. 2-3.

(36) 長澤和俊, 関内勲譯, 《東西文化의 交流》 pp. 219-243.

(37) 長澤和俊, 이재성譯, 《실크로드의 역사와 문화》, p. 131, 民族社, 1990.

(38) 《新潮世界美術辭典》, 新潮社版.

(39) 西安 何家村 출토품들은 安祿山의 亂때 낭시 숨기둔 皇族의 財寶의 일부로 추정되는데, 출토품의 수는 약 천여점으로 다수의 金銀器 뿐만 아니라 玛瑙, 玉, 수정, 유리기체等, 약품, 국내외 화폐들이 대량 집중

的 유형을 하고 있지만 부드럽게 반문양화된 차연배경과 기마인물의 服式 등의 모든 특징은 東洋의이다.

이와는 달리 문양이나 구성방법 등에서 페르시아풍의 外來的 요소들이 中國化되지 않고 그 양식적 원류를 그대로 유지하고 있는 것들이다.

이를테면 이들은 대개 장식문양으로서 사산朝 미술양식의 한 요소로 지적되는 圓圈의 연주문 테두리를 하고 있거나, 그 구성방법이 좌·우대칭적 성격을 하고 있어 뚜렷한 이란적 요소를 유지하고 있다.⁽⁴⁰⁾ 日本 法隆寺에 보장되어 있는 「四川王獅獵文錦」이나, 「狩獵文錦襪」 등이 그것인데, 前者の 특징을 보면 중앙에 立樹木이 있고 그것을 중심으로 좌·우대칭으로 사자를 공격하는 騎馬反身射人이 배치되어 있으며 그 외변을 連珠文帶가 싸고 있다. 騎馬人物의 모습은 분명 深目高鼻, 수염이 덥수룩한 서방귀족의 모습을 하고 있고 사냥물도 사자이며 타고 있는 말도 날개가 달려 非中國的, 非東洋의 요소가 뚜렷하다. 하지만 문양중에 「花樹對鹿」, 「吉」, 「山」 등의 漢字가 보여 中國에서 제작된 锦으로 추정하고 있다.⁽⁴¹⁾ 제작년대도 대략 7세기 초에서 중반으로 추정하는데⁽⁴²⁾, 이같은 锦의 제작배경에는 실제 수많은 이란인들이 唐代의 長安에 이주, 이들에 의한 적절적인 이란풍의 공예품제작이 있었을 것으로 추정되는 史實이 다음과 같은 역사기록에 보여 흥미롭다.

사산朝 페르시아는 642년 아랍군에게 멸망되면서 卑路斯(Piroûz)라 불리우는 王子를 비롯한 다수의 사산朝 유민들이 長安으로 망명하였다고 한다.⁽⁴³⁾ 이들 중에는 페르시아 王室소속의 공예가나 소그디아나 工匠들도 섞여있어 그들에 의해 페르시아風工藝品들이 만들어져 그것들이 금방 유행했을 것으로 보인다.⁽⁴⁴⁾ 즉 中國의 원료

로 직접 長安에서 만들어진 것이다. 또한 玄宗이 총애했던 楊貴妃의 개인전속 工房인 供貴妃院에는 다수의 사산朝 유민공예가들이 소속되었을 것으로 추정하는데⁽⁴⁵⁾, 이들은 ‘奇器異服을 造作하여’ 이를 貴妃에게 바쳤다고 한다.

圖 31은 新疆吐魯番에서 출토된 狩獵文夾纈絹잔편이다. 이 비단은 스탬프에 의한 연속무늬 형식으로 문양이 반복되고 있는데 넓은 들에 새, 토끼들이 달아나고 있고 騎馬反身射人이 달려드는 사자를 쏘고 있다. 새·풀 등의 간단한 자연배경 설정 속에 마치 문양처럼 전혀 생동감 없는 사자의 부자연스런 모습에서 사산朝風의 사냥모티브가 중국적 양상으로 옮아가는 과도적 특성으로 살펴볼 수 있다.

당시 이같은 배경에서 만들어진 唐代工藝品들은 특히 唐과 밀접한 정치 외교관계를 맺고 있던 新羅王室에 선물, 회사품으로 적지 않게 유입되었을 것이다. 現存遺品으로 수렵도를 문양으로 한 금속용기나 칙물 등을 전하는 것은 없지만 그같은 교류관계를 입증하는 것으로서 興輪寺址에서 발견된 統一新羅時代의 사냥무늬 벽돌(圖 32) 한편이 있다. 한 騎馬武士가 활을 당겨 토끼와 고라니를 쫓고 있는 장면인데 이는 페르시아풍으로 보기는 어렵고 唐代 圖 30의 狩獵文高足杯와 같은 수많은 금속용기에 표현되어 있는 狩獵文의 전통을 따르고 있는 것 같다. 따라서 新羅의 이같은 유품은 고구려의 수렵도의 전통보다는 唐과의 관계에서 살펴보는 것이 타당할 것이다.

III. 고구려 古墳壁畫의 狩獵圖

1. 狩獵行事의 원류 및 성격

고구려, 신라, 백제 모두 王朝의 史實중 사냥에 관한 기록이 적지 않다. 《三國史記》의 기록

발굴되어 唐代工藝品의 성격을 고찰하는데 대단히 중요한史料들이다.

(40) 秦弘燮, 〈皇龍寺 木塔址發見 花樹對禽紋金具〉, 《李弘植博士回甲紀念 韓國史學論叢》.

(41) 秦弘燮, 上揭論文.

(42) 秦弘燮, 上揭論文.

(43) 《The Cambridge History of Iran》 3(1) The Selucid Parthian and Sasanian Periods. 〈Chapter 3. Iran and China〉. 《舊唐書》卷 198. 西域傳, 波斯國條.

(44) 長澤和俊, 閔丙勲譯, 《東西文化의 交流》, p. 231.

(45) 《舊唐書》卷 51, 后妃上, 楊貴妃傳.

을 중심으로 정리한 表(p.57 참조)를 보면 고구려는 始祖 東明王代부터 마지막 寶藏王代까지 本紀에만 28회, 列傳 溫達條에 1회, 雜志 祀條에 1회 등 모두 30회에 이르고 백제는 本紀에 23회, 新羅는 本紀에 2회 등이다.

본글은 고구려 古墳壁畫에 그려진 수렵도를 중심으로 그 내용과 의미, 美術樣式의 諸특징들을 다루고자 하는 것임으로 백제, 신라의 경우는 생략하기로 한다. (단, 백제, 신라의 사냥관계 기사는 表로 정리했음).

고구려에 狩獵圖가 그려져 있는 고분들은 序論에서 밝혔듯이 中國 吉林省 通溝지방에 4基, 평안도 지방에 5基, 황해도에 1基 등이다. 이들 고분들은 대개 고구려 早期, 中期에 해당하며 시기적으로 대개 4~5세기에 속한다.⁽⁴⁶⁾

이미 앞에서 살펴보았듯이 中國의 경우苑囿의 밭달과 더불은 수렵행사의 의미와 규모가 확장되는 것이 漢代, 즉 서리 기원을 전후로 그 절정에 이르렀음을 생각할 때 大陸王朝와 불가분의 관계를 맺으며 밭달해 온 고구려도 狩獵祭儀에 있어 의미 및 행사내용을 중국으로부터 곧 받아들였을 것이다. 그리고 그것을 自國化시켜生活화하고 古墳壁畫로 그리는 데는 시대적인 간격이 있었을 것이다.

하지만 戰國時代末부티 中國 東北方에 위치한 塞外民族 중의 하나로 강성해 온 고구려는 그 초기엔 非中國的 北方文化를 기종으로 하고 있기 때문에 狩獵行事도 초기엔 고유한 특성을 갖고 밭달해 왔을 것이다.

일찌기 고구려인들의 先祖는 中國 東北지구에 퍼져 살던 古代 濟貊族의 한 갈래로서, 주로 지금의 혼강과 압록강 산간계곡지역에 거주하던 遊獵부락민으로 추정되고 있다. 이들이 위치한 지역적 환경은 농사지을 땅이 적고 높은 산과 깊은 계곡이 많아 야생동물의 성장과 번식에 유리하였을 것으로, 초기 고구려인들의 사냥활동은 모든 경제활동중 가장 중요한 것으로 이루어졌

을 것이다.

中國 古代문헌 중 고구려의 先祖人们이 일찌기 中原과 관계한 초기 내용중에 이들이 周王室에 특산물로서 짐승가죽을 바쳤다는 기록이 있는데⁽⁴⁷⁾ 역시 사냥과 관계깊은 이야기이다. 또한 中國史書에는 사냥물 외에도 고구려 특산물로 好弓과 馬를 지적하고 있는데⁽⁴⁸⁾ 이것들은 전투용 장비이기는 해도 사냥도구로서 빼놓을 수 없는 것들이다. 따라서 고구려는 古代王國의 면모를 갖기 이전부터 만주거주시대이래 고유한 습속으로서 騎馬狩獵의 전통을 확립하고 있었던 듯하다.

일찌기 中國에서 기원전 4세기경 戰國時代末趙의 武靈王이 匈奴族을 쳐부수기 위해 胡俗을 따라 간편한 騎馬전투방식을 취하고 있는 것을 앞장에서도 살펴보았다. 漢初 中原王朝를 크게 괴롭혔던 북방 기마민족인 昌頓의 匈奴族은 北方 유라시아일대와 오르도스지방을 연결하는 초원지대를 수도 없이 넘나들었는데 그의 세력의 동쪽끝이 예맥조선과 맞닿아 있었다고 한다. 따라서 초기왕국의 기초를 다져가는데 자리적 여건을 극복하고 대륙의 異民族들과 영토분쟁에서 야기된 호전적이고 투쟁적 성향을 지녔을 고구려인들이 일찌기 말을 타고 활을 쏘는 습속도 이들로부터 익혔을 것은 말할 것도 없다.

이같은 騎馬善射의 武人기질의 배양은 고구려 초기왕조의 지도자상으로는 반드시 갖추어야 할 덕목중의 하나였을 것이다. 고구려 建國始祖인 朱蒙의 이름은 그가 탈출해온 扶餘의 俗語로 '善射者'를 일컫는 말이다.⁽⁴⁹⁾ 그는 扶餘王과 귀족들의 행사인 狩獵大會에서 최고의 수확을 올려 부여왕자들과 뭇신하들의 시기를 받게 되어 결국 그 곳을 탈출, 그의 추종자들과 함께 고구려를 건국하기에 이른다.

朱蒙이 참여했던 扶餘王國의 狩獵行事에 대한 성격은 더 이상의 자료가 없어 그 특성을 규명할 길이 없다. 나만 기원전 37년 지금의 和仁縣을

(46) 金元龍, 〈高句麗 古墳壁畫의起源에對한研究〉, 《진단학보》 21, 1960. 10.
金元龍, 《韓國壁畫古墳》, 一志社.

(47) 《詩經》大雅, 韓奕, 李玉, 《高句麗 民族形成과 社會》 p. 34에서 제인용. 教保文庫, 1990.

(48) 《後漢書》卷 85-2814, ‘句麗一名貊(耳), 有別種, 依小水爲居, 因名曰小水, 出好弓 所謂‘貊弓’是也’, 《三國志》, 卷 30-849.. 844.

(49) 金富軾, 《三國史記》卷제 13, 高句麗本紀第一, 始祖東明王條.

중심으로 고구려를 세우고 그 세력을 확장시킬 즈음 사냥과 관련된 전승설화 한편이 《東國李相國集》에 수록되어 있어 초기의 내용을 살펴볼 수 있다. ⁽⁵⁰⁾

“東明王이 서쪽으로 巡狩할 때 우연히 흰 사슴(雪色鹿)을 얻었다. 蟹原 위에 거꾸로 매달고 감히 스스로 저주하기를 하늘이 沸流에 비를 내려 그 도성과 변방을 표물시키지 않으면 내가 너를 놓아주지 않을 것이니 너는 내 분함을 풀어다오. 사슴의 우는 소리 심히 슬퍼 위로 天帝의 귀에 사무쳤다. 장마비가 이래를 퍼부었다....”

이 내용은 朱蒙, 즉 東明王이 松讓의 沸流國을 쳐서 고구려국토를 넓힐 때 있었던 說話인 듯하다. 즉 우연히 잡은 흰 사슴을 이용하여 7일간 비를 내리게 해서 沸流國을 끈경에 빼뜨렸는데 결국 松讓王이 그해 6월에 나라를 들어 항복했다고 한다. ⁽⁵¹⁾

東明王이 巡狩할 때 얻은 흰색 사슴은 말, 돼지 등과 더불어 北方민족 특히 시베리아 諸族들에게 있어 대표적인 희생수이다. ⁽⁵²⁾ 만주 바이칼호 주변의 통구스族들은 말·사슴·개·순록같은 四足獸는 영혼의 운송자⁽⁵³⁾라든가, 天神과 同類로 다루어 번개나 비를 일으킬 수 있는 능력을 지닌 것으로 믿고 있다고 한다. ⁽⁵⁴⁾ 이러한 내용이 우리나라 東明王 전승설화에서는 사슴으로 표현되어 天神과 교용하는 것으로 나타난다. 또한 흰 사슴은 특히 시베리아 통구스족의 샤머니즘 중에 악령을 쫓아내는 정결한 동물로 간주되고 있는데 ⁽⁵⁵⁾, 본 설화로 보건대 고구려에서는 적(=악령)을 물리치는 國家的致祭의 희생수로 이용하고 있음을 알 수 있다.

百濟의 경우도 그 國家의 원류가 고구려에 있어서인지, 《三國史記》의 사냥관련기사 23회 중 王

이 神鹿(사슴)을 쏘았다는 내용이 9회나 된다. (表 참조)

中國의 경우 사슴(鹿)은 여러 사냥꾼들이 다투어 쫓아가 잡는 짐승이므로 여러 사람들이 경쟁하여 얻으려 하는 목적물이란 뜻에서 ‘帝位’를 일컫는 말이기도 하다. (例：中原之鹿，秦失其鹿...)

특히 흰색 犧牲獸에 대한 상서로움은 國家的諸事의 질조로 삼아 이후의 사냥기록중 고구려에서는 10회나 기록되어 있다. (表 참조) 中國에서는 殷人们이 특히 白色을 숭상하여 이에 관한 기록이 《禮記》에 보인다. “殷人们은 특히 白色을 숭상해서 大事敂(시체를 納棺하는 일)은 대낮(日中)에 하며 戎事(계사：전쟁에 관한 일)는 翰(白色馬)을 타고 희생수(牲)는 白色으로 한다.” ⁽⁵⁶⁾

《三國遺事》에 보면 殷王朝를 멸한 周의 武王이 殷의 太師(殷의 마지막 임금 紂의 속부)인 節子를 朝鮮에 봉했다는 내력이 있는데 ⁽⁵⁷⁾, 그 眞僞야 어떻든 한반도 북부를 중심으로 한 만주일대의 上古文化圈에 中原의 혼란을 틈타 中國유민들의 이곳으로의 유입은 능히 있었을 것이고 이 같은 특정색채와 관련된 의미규정이 또한 있었을 것은 쉽게 상상할 수 있다.

이렇게 고구려 건국 초기의 사냥행사에 대한 내용은 주로 北方유목민족들의 샤미니즘적 성격을 근간으로 하고 있다. 그러나 고구려가 王朝의 기반을 닦아 그 토대를 확립시켜 가는 과정에서 中原과 밀접한 관계를 갖게 되는 古代國家 초기·중기에 들어가면 사냥관계 기사도 더욱 빈번해지고 그 내용도 대단히 다양해진다.

고구려 王家の 수렵행사에 대한 목적과 내용을 구체적으로 밝히고 있는 기록은 《三國史記》列傳 溫達條와 雜志 第一祭祀條이다. 두 기록은 내용

(50) 이규보, 《東國李相國集》, 三卷, 고전국역총서 166, pp. 139-140. (東明西狩時 偶獲雪色鹿 倒懸蟹原上 敢自呪而謂 天下雨沸流 漂沒其都鄙 我固不汝放 汝可助我憤 鹿鳴聲甚哀 上徹天之耳 霖雨注七日...)

(51) 金富軾, 《三國史記》卷 13, 고구려本紀第一 始祖 東明王二年六月條.

(52) 金烈圭, 《韓國神話와 巫俗研究》 p. 28. 一潮閣, 1982.

(53) 金烈圭, 上揭書, p. 29.

(54) 金烈圭, 上揭書 p. 29.

(55) V. 디오세지/M. 호달外, 최길성 역, 《시베리아의 샤머니즘》 p. 440. 대우학술총서번역 17, 民音社.

(56) 《禮記》, 檀弓上第三. ‘殷人尚白，大事敂用日中，戎事乘翰，牲用白。’

(57) 一然, 《三國遺事》卷一 古朝鮮條.

이 거의 대동소이하다.

“고구려에서는 봄철 3월 3일이 되면 樂浪언덕에 모여 田獵을 하고 그날 잡은 산돼지, 사슴으로 하늘과 山川神에 제사를 지내는데, 그 날이 되면 王이 나가 사냥하고 여러 신하들과 五部의 병사들이 모두 따라 나섰다.”

윗 글에서는 사냥祭日, 獵場, 사냥물의 종류, 사냥행사의 儀典내용 등이 명시되어 있다. 따라서 表에 정리한 고구려 사냥관계기사와 더불어 그내용들을 좀더 자세히 고찰해 보도록 한다.

● 사냥祭日

溫達條와 雜志 祭祀條의 기록에서는 3월 3일을 사냥祭日로 지정, 일종의 年中行事의 성격으로 규정하고 있다. 漢代의 기록인 《禮記》에서는 皇室의 사냥祭日을 다만 季春⁽⁵⁸⁾, 즉 늦은 봄(음력 3月)으로만 명시하고 날짜는 구체적이지 않다. 어쨌든 漢代의 皇室의 사냥祭日과 고구려의 그 것은 대체로 일치한다. 원래 中國에서는 음력 3월의 첫번째 사일(巳日) 즉 3월 3일은 上巳라고 하는데 이 날 禮祭祀를 지내어 상서롭지 못한 기운을 멀어버리는 풍습이 있다. 6세기 宗懷이著 《荆楚歲時記》를 보면 江渚池沼의 변에서 제사를 지내 豐穀을 기원하고 차손의 번영과 降雨의 犯力を 빙 의식으로서 물가에서 行樂을 베풀었다고 한다.⁽⁵⁹⁾

우리 나라의 경우 《三國遺事》駕洛國記를 보면 3월 3일 즉 禮浴日에 駕洛國의始祖인 수로왕이 탄생하고 있어 이 날이 지닌 의미가 예사롭지 않음을 알게 한다. 또한 이 날은 일반적으로 原野에 나가 春의 들놀이를 하는 명절로서 儒生들은 酒肉을 준비하여 山亭이나 물가에 모여 하루를 清遊하기도 한다.

결국 이 날은 그해 새봄을 맞이하는 상징적 의미를 지닌 날로서 王家에서는 王과 모든 신하들이 전날까지의 상서롭지 못한 구태를 모두 멀어버리고 신선한 희생수를 사냥하여 肉을 마쳐 하늘과 先祖들에게 제사를 지내 세해의 풍년과

차손의 번영, 농사에 적절한 降雨를 기원했음이 틀림없다. 뜻날 물가에서 山水宴을 하니⁽⁶⁰⁾, 原野에서 새봄의 들놀이를 하는 풍습도 사냥하는 舊習만 없어진 이 날의 遺習인 듯하다.

그런데 溫達條와 祭祀條를 제외하고는 《三國史記》의 그밖의 기록을 보면 정작 3월 3일에 행해진 사냥기록은 없다.(表 참조) 이는 3월 3일에 정기적으로 행해진 수렵은 年中行事의 성격을 갖는 의례여서 기록이 생략되고 여타 다른 기록들은 아마 王朝諸事와 관련있는 특이한 상징적 성격을 띠어서 그 내용이 특별히 正史에 수록된 듯하다.

● 獵場

記錄에 등장하는 獵場들을 보면 樂浪언덕, 箕山, 尉中林, 骨句川, 閔中林, 賢山, 倭山, 社訥谷, 蛇川原, 龍山, 濱河原 등이 보인다.

이중 箕山은 고구려의 사냥관계기사 30회 중 5회나 등장한다. 琉璃王 3年(기원전 19년) 치유 기록에 보인 이래 262년 中川王 사냥기록에도 보여 이 기간만으로도 이곳은 근 250년에서 300년 간에 걸친 王家의 대대적인 獵場이었던 듯하다.

또한 琉璃王 24년(기원후 5년) 王이 이곳에서 田獵하다 거드랑이에 날개가 달린 異人을 얻어 조정에 테리와 머슬과 姓을 주고 사위까지 삼고 있어 진위야 어떻든 이곳은 모종의 신비함으로 가득찬 대단히 상서로운 곳이었던 듯하다.

또한 賢山이란 곳은 太祖大王이 이곳에서 紫色노루를 얻어 그 길조를 기뻐하고 있고, 新大王(165년~179년) 때에는 漢파의 세력다툼에서 크게 공을 세운 明臨苔夫가 돌아가자 王은 크게 슬퍼하며 禮를 갖추어 이곳에서 장사를 지내고 있다.⁽⁶¹⁾

대개 고구려의 王들은 그가 문헌 지명을 따서 謂號를 추증하는 듯하다. 고국원왕(卒年 371년 매장지는 故國原), 소수립왕(卒年 384년, 매장지는 소수립), 고국양왕(卒年 392년, 매장지는 고국양) 등이 그러하다. 이는 溫達條나 祭祀條에

(58) 本論文 p. 44 참조.

(59) 依田千百子, 《朝鮮民俗文化の研究》, 〈年中行事よりみた朝鮮における中國文化の受容形式についての一考察〉 pp. 119-120. 瑞璣書房, 昭 60.

(60) 경주 원성군에 있는 포석정(鮑石亭)은 통일신라시대 이후 历代王公들이 山水宴을 베풀던 곳이다.

(61) 金富軾, 《三國史記》 고구려本紀, 新大王 15年 9月條.

보이는 ‘…그날 잡은 산돼지, 사슴으로 하늘과 山川神에 제사를 지내는데…’라는 내용에서 추정해 보건대 山川神이란 아마 王들이 묻힌 지명을 따 謂號를 추증받고 그리고 山川神으로 받들어진 역대 왕들을 일컫는지도 모르겠다. 閔中王(44년~17년)의 경우 그가 묻힌 閔中原은 生前 그의 田獵地이다.

따라서 獵場의 성격이 그저 野生動物들이 방류된 山川이 아닌, 王家를 수호하는 神性이 부여된, 모종의 상징적 의미를 담고 있는 신령스러운 장소였음에 틀림없다. 다만 이들 獵場들이 지금의 어느 곳을 지칭하는지 그 장소를 단 한 곳도 알 수가 없어⁽⁶²⁾ 전반적인 獵場의 규모 및 지형적 특색 등을 파악할 수 없는 것이 유감스럽다.

• 犠牲獸의 성격

기록을 보면 하늘에 제사지낼 犠牲獸로서 사슴과 돼지를 들고 있다. 사슴에 대한 의미는 앞의 東明王의 獵獵內容에서 이미 살펴보았다. 돼지도 사슴 못지 않은 灵性을 갖고 있는 神聖獸이다.

《三國史記》琉璃王19年條(기원전 1년)에 보면 제사용 郊豕(郊는 天地에 제사지냄. 豚는 돼지, 멧돼지, 집돼지 총칭)가 달아나 託利, 斯卑의 두 관리인으로 하여금 잡아오게 했는데 그만 郊豕를 잘못 다루어 상처를 입히자 그 죄를 물어 구덩이에 던져 죽음을 내리고 있다. 원래 郊豕는 天地에 제사지낼 때 쓰는 牲豚로 國家의 致祭와 밀접한 관계가 있다. 따라서 그런 희생수를 상하게 한 죄로 죽음을 내릴 정도면 그 엄격함이 어찌 했는지 알 수 있다. 돼지는 王의 致政과도 곤잘 관련되어 등장한다. 같은 기록 同王 21年條(기원후 2년)를 보면 郊豕가 달아나 王이 희생을 맡은 薛支로 하여금 포획케 했는데, 그는 王에게 돼지를 붙잡은 國內尉那巖의 山水가 國都로 적합하다고 보고 이곳으로 천도하기를 권고하고 있다. 王은 그 권고를 받아들여 그 다음해 기원후 3년 수도를 國內城으로 천도하였다. 國內城은 장수왕 15년(427년) 평양으로 다시 천도하기까지 420여년간 고구려의 기반을 다진 王朝의 중심이었다. 돼지가 수도의 데를 잡아 주는 내용은 후

에 고려의 전국설화에도 나온다.⁽⁶³⁾

돼지가 갖고 있는 灵性은 山上王(17년~226년)과 관련된 사냥기록에서도 살펴볼 수 있다. 山上王은 달아난 郊豕 덕분으로 그의 후계자를 낳아줄 여자와 인연을 맺게 되었고, 그녀가 낳은 아들이 름을 郊彘(교체, 郊豕가 맺어준 事實을 따라 지음)라 하였는데, 이 아들이 다음 王位를 잇는 東川王이다.

따라서 고구려인들에게 있어 돼지는 하늘에 제사하는 신성한 희생수였을 뿐만 아니라 王權 수호에 있어 길조로서 그 길잡이 역할을 했던 듯하다.

• 사냥행사의 儀典的 성격

溫達條와 祭祀條의 기록에 “…그날이 되면 王이 나가 사냥하고 여러 신하들과 五部의 兵士들이 모두 따라 나섰다”라는 내용이 있다. 이것에서 추정해 보건대 고구려의 獵獵行事의 규모가 단지 王과 측근의 여가활동이 아닌 전 王公 귀족들이 모두 참석한 가운데 대대적으로 베풀어진 정기연례행사였음을 알게 한다. 보통 王이 문병사들처럼 직접 말을 타고 활을 쏴 사냥을 한다는 것은 평상시의 王의 쳐신과 관련지어 생각할 때 대단히 異例의 행위였을 것이고, 이것이 五部의 모든 兵士들과 더불어 이루어지고 있는 점에서 단지 사냥물을 얻는다는 목적 외에 부하장졸들의 사기진작과도 큰 관련이 있었을 것이다. 또한 중국측 기록인 《禮記》의 漢代 皇室의 獵獵內容과도 비슷한 성격으로서 사냥행사를 통한 군사검열, 군진의 연습이란 의미도 있었던 듯하다.

현 溫達條와 祭祀條의 기록만으로는 전체행사의 儀典의 내용은 짐작하기 어려운데 이같은 고구려의 獵獵을 통한 祭祀儀禮의 일단의 성격을 추정해 볼 수 있는 내용이 日本의 古記錄에 있어 흥미롭다.

《日本書紀》推古天皇 19年(611년) 5월 5일條를 보면,

“夏 5월 5일에 蔦田野에서 藥獵(사슴의 若角을 얻기 위한 사냥)을 개최하였다. 세벽에 藤原池의 위에 모여서 날이 셋과 동시에 출발하였

(62) 金富軾, 《三國史記》卷 37, 地理 四 고구려.

(63) 金鉉龍, 《韓國古說話集》 새문사, 1984, p. 256.

다. …略…이 날 諸臣들의 옷깃 깔은 다 각자 冠의 색깔에 맞추고 모든 髻花를 머리에 꽂았다. 大德, 小德은 다같이 金을, 大仁, 小仁은 王冕(豹)의 꼬리를, 大禮 이하는 烏의 꼬리를 사용하였다. (十九年夏五月五日, 藥獵於菟田野, 取鶴鳴時, 集于藤原池上, 以會明乃往之. 東田細目臣營…(略)… 是日 諸臣服色,皆隨冠色, 各着髻花, 則大德小德用金, 大仁小仁用豹尾, 大禮以下用烏尾.)”

이 전체적인 내용은 분명 고구려의 狩獵行事의 전모, 혹은 일부를 모방하고 있는 듯하다. 狩獵이 藥材로서 若角을 얻는다는 목적만 제외하고,行事를 위해 특별한 의습을 갖추는데, 冠및 깔에 따라 옷의 색깔을 맞추고 머리에 金, 銀 또는 王冕의 꼬리, 새깃 등을 장식으로 꽂고 있다. 이는 분명 고구려의 관복제도를 연상케 한다. 《三國史記》의 고구려 色服條의 “土人은 두개의 새깃(鳥羽)을 더 꽂고 키한 자는 그 관을 蘇骨이라 하는데 흔히 紫色羅紗로 만들고 金, 銀으로 장식한다…”는 내용과 거의 부합한다.

이 推古朝(592년~628년)는 유난히 고구려와 밀접한 외교관계를 맺고 있던 때이다. 推古天皇 3년(595년)에는 고구려의 승려 慧慈가 日本에 건너가 聖德太子의 스승이 되고 있고⁽⁶⁴⁾, 9년(601년)에는 日本사신이 고구려王室에 入朝하고 있으니⁽⁶⁵⁾, 11년(603년)에 처음으로 冠位를 제정하였는데 관의 고·하에 따라 색비단으로 머리를 장식하고 元后(정초)에는 髻花(しづ, 머리나 관을 꽂는 장식)를 달고 있어⁽⁶⁶⁾ 이 시기의 日本王室의 의전적 내용에 고구려적인 색채가 대단히 짙음을 알게 한다. 또한 推古天皇 13년(605년)에는 고구려의 大興王(嬰陽王인듯?)이 日本皇室에 佛像 제조를 드기 위해 黃金 300냥을 보내오고 있고,⁽⁶⁷⁾ 18년(610년)에는 고구려王이 승려 壬徵과 法定을 보내 五經을 전하였으며, 이해에 채색 및 紙墨만드는 법, 수리의 맷돌 등의 제조

법을 가르쳐 주었다 한다.⁽⁶⁸⁾ 이러한 고구려와 밀접한 관계를 배경으로 19년(611년) 처음으로 莞田野에서의 藥獵의 사냥기사가 등장하고 연이어 같은 수렵기사가 20년, 22년條에 잇달아 나타난다.⁽⁶⁹⁾ 이 행사들은 고구려의 여리 先進文物들과 함께 日本王家에 상충고급문화의 한가지로 받아들여진 것임에 틀림없다. 그儀典은 外來의 異國의 내용을 그대로 유지하고 있어서 그것을 근거로 고구려의 狩獵行事 儀典의 모습을 역으로 추정해 볼 수 있는 것이다.

2. 古墳壁畫의 狩獵圖의 양식적 특징

고구려의 狩獵圖中 壁畫상태가 양호해서 그 전모를 대략 살펴볼 수 있는 것은 舞踊塚, 長川1號墳, 藥水里古墳, 梅山里四神塚, 德宗리 고분, 안악 1호분 정도이고 나머지 감신총, 三室塚, 대안리 1호분 등은 바닥이 침해서 겨우 위치만 확인할 수 있을 뿐이다.

따라서 前者의 고분들을 중심으로 壁畫내의 狩獵圖의 구성상의 방법과 구도의 일반적인 특징들만 살펴보기로 한다.

- 舞踊塚(中國吉林省 帽安縣 如山南麓 소재)
(圖 33).

狩獵圖는 玄室 西壁 중앙부에 그려져 있는데 乍轎車圖와의 사이에 큰 나무를 그리 넣어 壁面을 분류시키고 있다. 5명의 騎馬獵射人들이 대단히 긴 장갑 있고 용솟음치는 기백으로 산악에서 사슴·호랑이들을 쫓는 장면을 여지없이 묘사해 내어 고구려 狩獵圖壁畫중 가장 빼미라 하겠다. 壁面의 상단에서 두마리의 사슴을 쫓는 騎馬狩獵인의 자세가 특히 漢代 공예품에 종종 등장하는 騎馬反身射의 자세를 하고 있어兩者간의 명백한 영향관계를 알게 해준다. 하지만 武士의 服式의 세깃털을 꽂은 고구려 특유의 烏羽冠, 통이 넓은 바지(袴)에 네��을 맨 아른바 옹구바지 모양의 下衣와 소매가 약간 넓고 기장이 긴 저고리

(64) 《日本書紀》, 推古天皇三年五月條.

(65) 《日本書紀》, 推古天皇九年三月條.

(66) 《日本書紀》, 推古天皇十一年十二月條.

(67) 《日本書紀》, 推古天皇十三年夏四月條.

(68) 《日本書紀》, 推古天皇十八年春三月條.

(69) 《日本書紀》, 推古天皇二十年夏五月五日條.

《日本書紀》, 推古天皇二十二年夏五月五日條.

(襦)류의 上衣는 고구려 고유服製로⁽⁷⁰⁾ 그다지 크지 않은 고구려 土產인 果下馬⁽⁷¹⁾인듯한 말 등과 더불어 이같은 外來的 모티브가 완전 고구려화한 경향을 보여준다.

하지만 산악보다 동물이 더 크고 또한 동물 상호간의 비례도 무시되어 전체적인 박진감 넘치는 효과에도 불구하고 여전히 繪畫상의 통일된 공간감 표출에는 이르지 못하고 있다.

- 梅山里 四神塚(평안남도 龍岡郡 大代面 梅山里 소재) (圖 34)

일찌기 玄室 西壁에 그려진 수렵도에 의해 狩獵塚이라 불리웠던 壁畫古墳이다. 앞의 舞踊塚 狩獵圖처럼 壁面 중앙에 독립주제로서 자연배경 설명이 일체 생략된 채 두마리의 사슴을 쫓는 기마무사의 모습이 보이고 그 위에 月像인 두꺼비가 있고 아랫부분에는 가늘고 긴 몸집의 白號가 묘사되어 있다. 자연배경이 없는 특색은 狩獵圖를 포함한 墓主의 생활풍습도가 사라지고 後代 四神圖가 壁畫의 주제로 등장하는 과도기적 특성으로 볼 수 있을 것이다. 따라서 이러한 특색은 梅山里 四神塚의 편년을 설정하게 해주는 주요특징이라 하겠다.

- 長川1號墳(中國 吉林省 通溝 帽安縣 소재) (圖 35)

前室 北壁에는 운동경기, 음악, 무용, 곡예 등 고구려인들의 野遊풍경이 매우 다양하고 풍부하게 그려져 있는데 그 밑부분에 수렵장면이 전개되고 있다.

오른쪽 상단부위를 보면 절기는 봄인듯 큰 나무에서 꽃이 떨어져 온 벽면 전체를 날아다니고 그 나무밑에 墓主인듯한 인물이 손님과 함께 앉아있다. 사냥하는 말탄무사들의 종횡으로 내달리는 속도감 있는 화면전개와 사냥감인 멧돼지, 사슴, 고라니들의 쫓기는 모습들은 野遊풍경 전체에 대단히 활기찬 분위기를 자아내고 있다. 나무표현에 있어 마치 고사리같은 형식감은 여전히 사실적인 모습과 거리가 있으나 인물과 동물

들의 상호크기감, 비례감들은 舞踊塚의 그것들에 비해 크게 진일보한 느낌이다.

- 안악 1號室(황해도 안악군 大遠面 山上里 소재) (圖 36)

玄室 西壁 상부에 수렵도가 그려져 있는데 도망치는 노루를 향해 狩獵武인이 달리는 말 위에서 힘차게 활시위를 당기고 있다. 중앙에 渴筆 白描로 山이 그려져 있고 그 좌우에 소나무가 배치되어 있다. 산 위에는 꿩을 잡는 매를 그린 듯하다. 고구려에서는 일찍부터 매를 수렵용으로 이용했다고 하는데⁽⁷²⁾ 고구려의 매는 中國 唐代 王室에서도 인기가 있었다고 한다.⁽⁷³⁾ 매사냥그림은 삼실총 제 1室 壁畫에서도 보인다.⁽⁷⁴⁾

- 藥水里 壁畫古墳(평안남도 江西郡 江西面 藥水里 소재) (圖 37)

南壁의 서측에서 西壁전면에 걸쳐 狩獵圖가 그려져 있다. 윗부분의 산골짜기에 물이꾼들이 보이고 그들에 쫓긴 동물들이 수렵이 벌어지고 있는 쪽으로 달려오고 있다. 오른쪽에서 11명의 기마인들이 狩獵場으로 줄지어 오고 있고 獵場에는 3명의 말탄 사수가 호랑이, 곰, 사슴 등을 향해 활을 쏘고 있다.

이들 뒤에는 3명의 鼓吹樂人과 2명의 무용수들도 있어 일종의 祭典의 성격을 갖는 종합행사인 듯한 느낌을 준다. 특히 玄室 北壁의 星座圖에서 북두칠성이 차루가 동쪽을 가리키고 있는 것에서 이 狩獵이 봄풍경인 것을 지적하는 史家도 있다.⁽⁷⁵⁾

- 덕홍리고분(평안남도 대안시 덕홍리 소재) (圖 38).

덕홍리 古墳은 墓主의 안장기일이 永樂 18年 (409년)이란 명문이 있어 고구려 壁畫古墳사상 절대년대를 알게 해주는 주요한 유적이다. 동쪽 천정의 아랫부분과 그와 맞닿은 북쪽과 남쪽천정 일부분에 사냥그림이 있는데 8명의 射手가 말을 타고 범, 멧돼지, 사슴, 노루들을 추격하고 있다.

(70) 崔淳雨, 〈高句麗古墳壁畫人物圖의 類型〉, 《國寶》繪畫.

(71) 《三國志》, 卷 30.

(72) 金富軾, 《三國史記》, 卷 15, 고구려本紀 제 3, 大祖大王, 69年 冬月條.

(73) 《唐語林》, 卷五, 補遺 《申王有高句麗赤鷹每獵必直之駕前, 目之爲快雲兒》.

(74) 金基雄, 《韓國의 壁畫古墳》, 同和出版社, 1982, p. 233.

(75) 金基雄, 上揭書, p. 248.

산악과 산정에 묘사된 나무들의 모습이 六朝時代 納畫 전통에서 보듯 매우 古樣으로 표현되어 있어 兩者 간의 繪畫 樣式의 영향관계도 고려하게 한다. ⁽⁷⁶⁾

이상 비교적 보존상태가 양호한 古墳 壁畫들을 중심으로 고구려의 狩獵圖의 제 특징들을 살펴보았다.

수령도들은 특히 前室, 後室을 막론하고 대개 西壁에 배치되는데(안악 1號墳, 梅山里 四神塚, 舞踊塚, 藥水里 古墳, 감신총) 아마 일정한 제도와 규칙이 있었을 것이다. 이는 中國 周代에 확립된 음양오행설과 관련이 있는 듯한데 사냥관계 기사중 일정한 지역을 지정하지 않고 단지 시쪽으로 수령을 나갔다는 내용도 종종 보여(《東國李相國集》東明王條, 《三國史記》고구리本紀琉璃明王二年九月條, 백제의 경우 古爾王三年十月條, 辰斯王七年七月條, 同王七年八月條, 東城王十二年九月條) 수령행사의 내용중에는 일종의 방위개념도 포함되어 있었음을 짐작하게 한다.

IV. 結論

이미 살펴본 대로 東·西方의 古代 상충문화권에는 王·貴族들이 주축이 되고 儀典내용도 대단히 유사한 狩獵行事가 古代王朝 初期부터 거의 동시에 존재하여 발달해 온 듯하다.

대개는 이 행사를 위한 특별한 장소(範圍)에서 특별히 사육된 야수들을 사냥하는 것으로 王을 중심으로 문병사와 신하들이 참여한 가운데 음악과 가무속에서 이루어지는 일종의 祭典의 행사이다. 西方의 경우는 대개 王이 직접 야수를 쓰러뜨려 王家의 神性과 권위를 보증받는 상징적 행사였던 듯한데 대개 사냥을 자체에 대한 관심여부는 없는 것 같다.

(76) 東晉의 화가 頤愷之의 그림 《女仕箴圖卷》, 《洛神賦圖卷》의 山水표현 참조.

(77) 古代 스키타인人们의 동·서 교역에 대한 내용을 알게 해 주는 증거로서 현 소련 리시아공화국 산지 알타이 자치구에 있는 파지리크(Pazyryk)古墳이 있다. 여기에는 기원전 5세기(혹은 기원전 3~2세기) 유목귀족의 고총(高塚)이 있는데, 그 출토품에 中國製 銅鏡, 견적물, 펜트 등의 적물이 다수 있다. 견적물등의 문양에는 서방의 아케메네스朝의 영향을 받은 것도 있어, 東·西문화교류의 스키타인人们的 역할이란 측면에서 사적 가치를 갖는 주요 유적지이다.

(78) 江上波夫, 〈月氏と崑崙の玉〉《内陸アジアの自然と文化》, pp. 319-330, 平凡社, 1985.

그러나 中國에서는 天帝에게 재사지멸 犠牲獸의 회득이란 儀典의 내용 외에 軍事活動이란 현실적 목적도 겸하고 있어 일견 實用性이 짙은 일면도 보여준다. 이러한 약간의 차이는 있어도 수령을 위한 독립된 공간이란 「苑」에서의 「郊獵」(집승을 울타리로 바아놓고 행하는 狩獵)이란 성격은 대동소이하다.

따라서 東西 古代社會에서는 狩獵行事의 원문제 및 상호영향관계에 대한 결론은 차치하고 유사이진부터 두 문화권은 모종의 뿌트를 통해 확실히 접촉하고 있었음을 짐작하게 한다.

中國의 古代王朝에 파미르 以西의 서방세계에 대한 사정이 확실해진 것은 漢武帝 이후부터이다. 그 이전 시대의 東·西交流를 담당했던 主體는 확실하지는 않지만 대개는 서아시아·中國北方의 초원지대에 흩어지 살던 古代 유목·기마민족들의 역할이 주목된다.

예를 들면 기원전 7세기부터 서아시아 지방에 군림하면서 흑해연안에서 우랄산맥을 넘어 알타이 지방까지 교역을 하던 스키타이인들의 활동⁽⁷⁷⁾, 또한 中國의 殷周時代부터 대단히 애호를 받아온 玉은 주로 西域의 호탄지방에서 유입된 것으로 보고 있는데 이를 담당했으리라 추측되는 古代 月氏, 혹은 禹氏의 존재⁽⁷⁸⁾, 기원전 3세기부터 그 실체를 들어내기 시작하여 중국 北方 및 몽고리아를 제패하면서 감숙, 하서지방에 퍼져 살던 古代 月氏族들을 西方의 옥서스 河畔으로 밀어버린 匈奴族들의 행적 등을 면밀히 검토해 볼 필요가 있다.

고구려의 狩獵의 전통은 초기엔 만주시대 이래의 騎馬民族의 한 습속으로 또한 匈奴를 비롯한 北方異民族들의 접촉으로 일찍부터 확립되어 있었다. 하지만 古代王國의 기틀을 마련하면서부터 大陸王朝와 불가분의 관계를 맺게 되고 王家の 狩獵도 일정한 年中行事의 성격을 갖고 다양한 의전형식을 갖추게 되는 것 같다.

하지만 대개 4~5세기에 걸쳐 제작되었으리라 보는 古墳壁畫의 狩獵圖들의 제특징을 살펴보면 外來的 요소는 거의 찾아보기 힘들고 모든 儀典 내용이 완전 고구려화했음을 알 수 있다. 따라서 7세기 초 당시 고구려와 밀접한 관계를 맺고 있던 日本王室에 까지 그 문화적 영향력을 끼쳐 '고구려식의 수렵행사'를 개최하게 했던 것이다.

고구려 古墳壁畫에 대한 편년문제가 이루어지지 못하고 있고 또한 壁畫內의 狩獵圖들을 직접 보고 분석할 수 없는 상황에서 수렵도 樣式의 前·後관계를 살펴보는 등의 본격적인 繪畫史의

연구는 대단히 어려운 문제이다.

또한 이들 狩獵圖들은 舞踊塚이나 梅山里 四神塚처럼 한 벽면 가득 독립주제로 그려져 있는 경우도 있으나 대부분 生活圖의 다양한 주제 속에 일부분으로 그려져 있어서 수렵장면만 추출해서 양식적인 특징을 고찰하는 것은 壁畫의 종체적 양상을 해석해 내는데 큰 難를 범할 가능성도 십분 있다. 따라서 壁畫의 여러 畫題들의 의미와 내용적 연구가 이루어져 종합적인 고찰이 가능해질 때면 본 狩獵圖의 성격 및 양식사적 특징도 더욱 확실해질 것이다.

〈表. 《三國史記》 사냥관련 기사〉

國號	王	西紀(년)	기사내용	출처
고구려	東明聖王	B.C. 37~ B.C. 20	'朱蒙의 이름은 扶餘의 俗語로 善射者를 일컬음.' '주몽은 특히 말을 잘 다룬.' '王이 原野에서 사냥을 할때 朱蒙은 善射인 까닭으로 화살을 쳐게 주었으나 그가 잡은 짐승은 많았다...'	本紀
"	琉璃明王	B.C. 18 2年 9月	王이 西로 巡狩하여 自獐(원 노루)를 얻었다.	"
"	琉璃明王	B.C. 19 3年 7月	王이 箕山이란 곳에서 田獵을 행하고 7일동안 돌아오지 아니하였는데...	"
"	琉璃明王	B.C. 1 19年 8月	제사용 郊豕가 달아나 託利와 斯卑로 하여금 잡아오게 했는데 칼로 돼지의 脚筋을 끊는 실수로 '祭天할 희생물 을 상하게했다는 죄로' 坑中에 떨어져 죽음을 당함.	"
"	琉璃王	2 21年 3月	郊豕가 달아나 王이 희생을 맡은 薛支로 하여금 포획케 함. 그는 王에게 돼지를 불잡은 곳인 國內尉那巖의 山水가 國都로 적합하다고 보고 이곳으로 활도하기를 강청 함. (22年(A.D. 3년)에 활도함)	"
"	琉璃王	2 21年 4月	王이 尉中林에서 田獵을 함.	"
"	琉璃王	3 22年 12月	王이 質山 北쪽에서 田獵을 행하여 대세가 되도록 돌아 오지 않음. 이에 大輔 陝父가 王에게 田獵에 지나친 시간 할애를 탓하자...	"
"	琉璃王	5 24年 9月	王이 箕山 原野에서 田獵을 하다 한 異人을 얻었는데 그의 겨드랑이에 羽가 달려 있었음. 조정에 등용하여 羽氏란 성을 주고 王女를 娶케 함.	"
"	大武神王	20 3年 8月	王이 骨句川에서 田獵을 하다 神馬를 얻어 그 이름을 駆驥라 함. (4년(21년) 3월에 이 駆驥가 부여馬 100필을 거느리고 鶴盤嶺 밑 車迴谷에 옴.)	"
"	閔中王	46 3年 7月	王이 東으로 사냥을 나가 원 노루를 얻었다.	"

國 號	王	西 紀(년)	기 사 내 용	출 치
"	樹中王	47 4年 4月	樹中原에 시 獵田을 하다 한 石窟이 있음을 보고 王이 죽으면 이곳에 장사지내되 陵墓는 만들지 말 것을 명함.	本 紀
"	大祖大王	62 10年 8月	王이 東으로 獵獵하여 白鹿을 얻었다.	"
"	大祖大王	77 25年 10月	부여의 사신이 三角의 사슴과 長尾의 토끼를 마치며 王이 이를 瑞物이라 하여 죄인을 대사면하였다.	"
"	大祖大王	98 46年 3月	王이 東으로 檜城에 순수할 때 西等 創山에서 白鹿을 잡고…	"
"	大祖大王	107 55年 9月	王이 賢山 南에 사냥하여 紫色노루를 잡았다.	"
"	大祖大王	132 80年 7月	王弟 遂成이 倭山에서 사냥하여 左右와 더불어 宴會할 새…	"
"	大祖大王	138 86年 7月	(王弟) 遂成이 賢陽에서 사냥할 새 7일이 되도록 돌아오지 않고 戲樂함이 한량없었다…	"
"	大祖大王	138 86年 7月	遂成이 箕山(丘)에서 사냥하고 5일만에 돌아오니…	"
"	大祖大王	146 94年 7月	遂成이 倭山에서 사냥할 새…	"
"	次 大 王	148 3年 7月	王이 平儲原에 田獵할 새 白狐가 뒤를 따라오며 올었다. 王이 쏘아맞히지 못하고 巫師에게 긴 흥을 물으니 대답하기를…	"
"	故國川王	194 16年 10月	王이 賢陽에서 田獵한 새 路上에 어떤 우는 사람이 있음을 보고…	"
"	山上王	199 3年 9月	王이 賢陽에 田獵하였다.	"
"	中川王	250 3年	후에 王이 箕山에서 田獵하고 돌아오니…	"
"	中川王	259 12年 12月	王이 社汭谷에서 田獵하였다…	"
"	中川王	262 15年	王이 箕山에서 흰 노루를 잡았다.	"
"	西川王	276 7年 4月	王이 新城에 行幸하여 사냥하다가 흰 사슴을 얻었다.	"
"	西川王	281 19年 8月	王이 東으로 시낭하여 白鹿을 얻었다.	"
"	長壽王	414 2年 10月	王이 蛇川原에 전렵하여 흰 노루를 얻었다.	"
"	文咨明王	506 15年 8月	王이 龍山 南에서 사냥을 하고 5일만에 돌아왔다.	"

國 號	王	西 紀(년)	기 사 내 용	출 쳐
고구려	平原王	571 13年 2月	王이 濁河原에서 田獵을 하고 五旬만에 돌아왔다.	"
"	"		고구려는 항상 三月 三日에 樂浪의 丘陵에 모여 사냥하고 鮪志 고래지·사슴을 잡아서 하늘과 山川에 제사한다.	雜志
"			고구려에서는 항상 三月三일이면 樂浪 언덕에 모여 田獵을 하고 그날 잡은 산돼지, 사슴으로 하늘과 山川神에 제사를 지내는데, 그년이 되면 王이 나가 사냥을 하고 여려신하들과 五部의 兵士들이 모두 따라 나섰다.	列典
百濟	溫祚王	B.C. 14 5年 10月	북면을 巡撫하고 사냥을 하여 神鹿을 잡았다.	本紀
"	溫祚王	B.C. 9 10年 9月	王이 사냥을 나가 神鹿을 잡아 馬韓에 보냈다.	"
"	溫祚王	A.D. 2 20年 9月	王이 기병 1천을 거느리고 斧峴 東에서 사냥을 하다가…	"
"	溫祚王	25 43年 8月	王이 牙山原에서 五日동안 사냥을 하였다.	"
"	多婁王	31 4年 9月	王이 橫岳下에서 사냥을 하였는데 한쌍의 사슴을 연단아 맞히니 衆人이 친탄하였다.	"
"	己婁王	103 27年	王이 漢山에서 사냥하여 神鹿을 잡았다.	"
"	蓋婁王	131 4年 4月	王이 漢山에서 사냥을 하였다.	"
"	古爾王	236 3年 10月	王이 西海의 大島(강화도?)에서 사냥을 하였는데 손수 40마리의 사슴을 쏘았다.	"
"	古爾王	238 5年 2月	釜山(振威)에서 사냥을 하고 五旬만에 돌아왔다.	"
"	比流王	325 22年 11月	王이 狗原 北쪽에서 사냥을 하여 손수 사슴을 쏘았다.	"
"	辰斯王	391 7年 7月	國西의 大島(강화도)에서 사냥을 하였는데 王이 친히 사슴을 쏘았다.	"
"	辰斯王	391 7年 8月	또 橫岳의 西쪽에서 사냥을 하였다.	"
"	辰斯王	392 8年	王이 狗原에서 사냥을 하였는데 10日이 지나도 돌아오지 않았다.	"
"	文周王	476? 478?	왕이 사냥을 나가 外宿하다 자객에게 害함.	"
"	東城王	483 5年 春	王이 사냥으로 漢山城(?)에 이르러 民軍을 위문하고 淚旬에 돌아왔다.	"
"	東城王	483 5年 4月	옹진(공주) 北에서 사냥을 하여 神鹿을 잡았다.	"

國 號	王	西 紀(년)	기 사 내 용	출 치
百 濟	東 城 王	490 12年 9月	王이 國西의 泗沘原에서 사냥을 하였다.	本 紀
"	東 城 王	492 14年 10月	王이 牛鳴谷에 사냥하여 친히 사슴을 쏘았다.	"
"	東 城 王	500 22年 4月	牛頭城(위치 미상)에서 사냥을 하였는데 비와 우박을 만나 그치었다.	"
"	東 城 王	501 23年 10月	王이 泗沘(부여)의 東原에서 사냥을 하였다.	"
"	東 城 王	501 23年 11月	熊川 北原에서 사냥을 하였고 또 泗沘西原에서 사냥을 하였는데 大雪에 막히어....	"
"	武 寧 王	522 22年 9月	王이 狐山原에서 사냥을 하였다.	"
新 羅	儒理尼師 今	42 19年 8月	貊國의 渠師가 禽獸를 잡아 사냥하여 王에게 바치었다.	"
"	祇摩尼師 今	80~111	婆娑王이 檬濱澤에서 사냥할 세 태자(祇摩)도 따라와 사냥이 끝난 뒤 韓岐部를 지날세...	"

國 號	王	西 紀(년)	기 사 내 용	출 치
고구려	平原王	571 13年 2月	王이 湿河原에서 田獵을 하고 五旬만에 돌아왔다.	"
"	"		고구려는 항상 三月 三日에 樂浪의 丘陵에 모여 사냥하고 鮑志 고 돼지·사슴을 잡아서 하늘과 山川에 제사한다.	雜志
"			고구려에서는 항상 三月 三日이면 樂浪 언덕에 모여 田獵을 하고 그날 잡은 산돼지, 사슴으로 하늘과 山川神에 제사를 지내는데, 그날이 되면 王이 나가 사냥을 하고 여러신하들과 五部의 兵士들이 모두 따라 나섰다.	列典
百濟	溫祚王	B.C. 14 5年 10月	북변을 巡撫하고 사냥을 하여 神鹿을 잡았다.	本紀
"	溫祚王	B.C. 9 10年 9月	王이 사냥을 나가 神鹿을 잡아 馬韓에 보냈다.	"
"	溫祚王	A.D. 2 20年 9月	王이 기병 1천을 거느리고 斧峴 東에서 사냥을 하다가…	"
"	溫祚王	25 43年 8月	王이 牙山原에서 五日동안 사냥을 하였다.	"
"	多婁王	31 4年 9月	王이 橫岳下에서 사냥을 하였는데 한쌍의 시슴을 연달아 맞히니 衆人이 찬탄하였다.	"
"	己婁王	103 27年	王이 漢山에서 사냥하여 神鹿을 잡았다.	"
"	蓋婁王	131 4年 4月	王이 漢山에서 사냥을 하였다.	"
"	吉爾王	236 3年 10月	王이 西海의 大島(강화도?)에서 사냥을 하였는데 손수 40마리의 사슴을 쏘았다.	"
"	吉爾王	238 5年 2月	釜山(振威)에서 사냥을 하고 五旬만에 돌아왔다.	"
"	比流王	325 22年 11月	王이 狗原 北쪽에서 사냥을 하여 손수 사슴을 쏘았다.	"
"	辰斯王	391 7年 7月	國西의 大島(강화도)에서 사냥을 하였는데 王이 친히 사슴을 쏘았다.	"
"	辰斯王	391 7年 8月	또 橫岳의 西쪽에서 사냥을 하였다.	"
"	辰斯王	392 8年	王이 狗原에서 사냥을 하였는데 10日이 지나도 돌아오지 않았다.	"
"	文周王	476? 478?	왕이 사냥을 나가 外宿하다 자객에게 害함.	"
"	東城王	483 5年 春	王이 사냥으로 漢山城(?)에 이르러 民軍을 위문하고 淚句에 돌아왔다.	"
"	東城王	483 5年 4月	옹진(공주) 北에서 사냥을 하여 神鹿을 잡았다.	"

國 號	王	西 紀(년)	기 사 내 운	출 치
百 濱	東城王	490 12年 9月	王이 國西의 泗沘原에서 사냥을 하였다.	本 紀
"	東城王	492 14年 10月	王이 牛鳴谷에 사냥하여 친히 사슴을 쏘았다.	"
"	東城王	500 22年 4月	牛頭城(위치 미상)에서 사냥을 하였는데 비와 우박을 만나 그치었다.	"
"	東城王	501 23年 10月	王이 泗沘(부여)의 東原에서 사냥을 하였다.	"
"	東城王	501 23年 11月	熊川 北原에서 사냥을 하였고 또 泗沘西原에서 사냥을 하였는데 大雪에 막히어. ...	"
"	武寧王	522 22年 9月	王이 狐山原에서 사냥을 하였다.	"
新 羅	儒理尼師 今	42 19年 8月	貊國의 渠師가 禽獸를 잡아 사냥하여 王에게 바치었다.	"
"	祇摩尼師 今	80~111	婆娑王이 檀溪瀝에서 사냥할 세 태자(祇摩)도 따라와 사냥이 끝난 뒤 韓岐部를 지날새...	"



圖 1. 「사자 사냥 기념비」
기원전 3100년경, 험무암, 와르카출토,
마그다드 이라크국립박물관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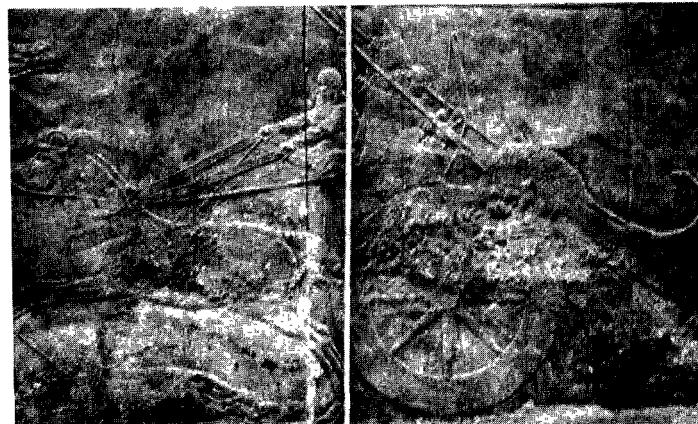


圖 2. 「앗슈르마니팔王의 수레」(부분) 기원전 7세기,
쿠운지크 「北宮殿址」 출토, 런던 대영박물관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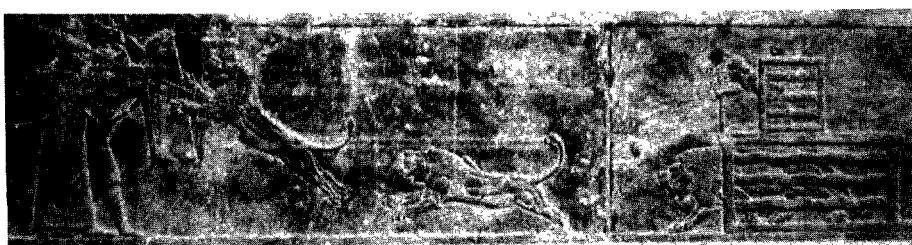


圖 3. 「王家の苑」 장면(부분), 기원전 7세기, 쿠운지크
「北宮殿址」 출토, 런던 대영박물관



圖 4. 「王家의苑」 장면(부분)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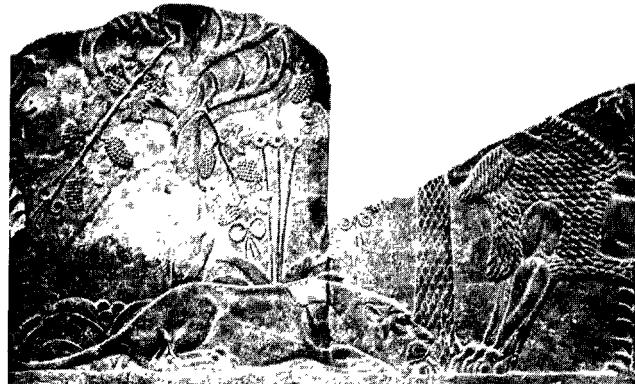


圖 5. 「王家의苑」 장면(부분)



圖 6. 「방패의 獵獵文飾金具」, 기원전 6~5세기
銀, 鎏金, 옥서스遺寶, 런던 대영박물관



圖 7. 「狩獵文 劍鞘」, 기원전 7~6세기
金, 옥서스遺寶, 런던 대영박물관



圖 8. 「샤프트 2세의 사자사냥」 銀製皿,
4세기, 부분도금, 우랄지방출토,
페닌그라드 애로비타류 미술관



圖 9. 「帝王의 사자사냥」 銀皿,
4세기, 이란 사리출토



圖 10. 타·키·부스탄의 石窟 前景
6~7세기, 게르만샤, 이란



圖 11. 「帝王의 사슴사냥」, 6~7세기
타·키·부스탄 大洞부조,
게르만샤, 이란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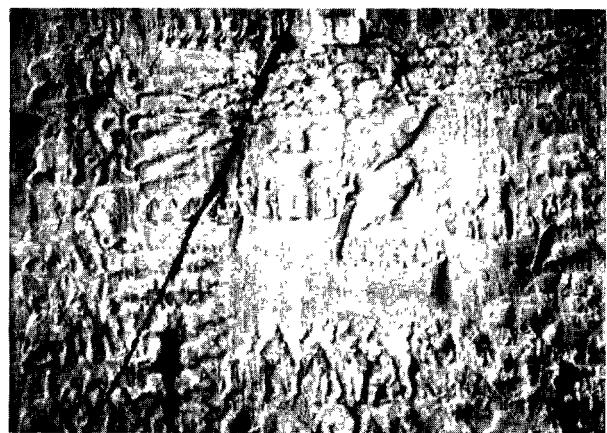


圖 12. 「帝王의 猪사냥」, 6~7세기
타·키·부스탄 大洞부조,
게르만샤, 이란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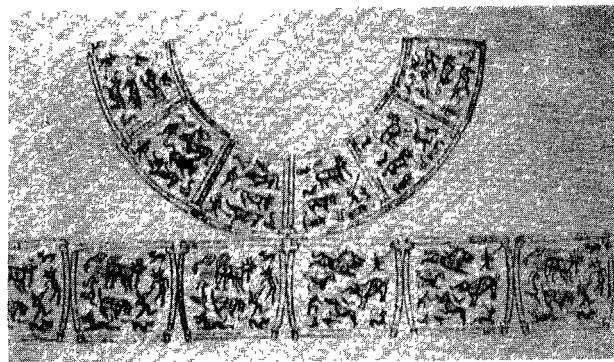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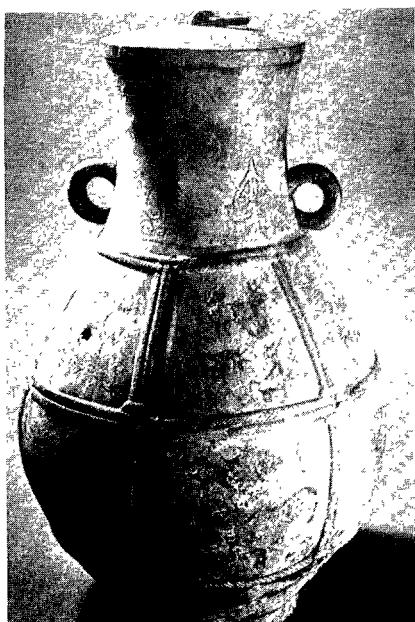


圖 13. 河北 唐山 賈各莊 출토

青銅象嵌狩獵文壺 및

문양전개도(戰國 前期)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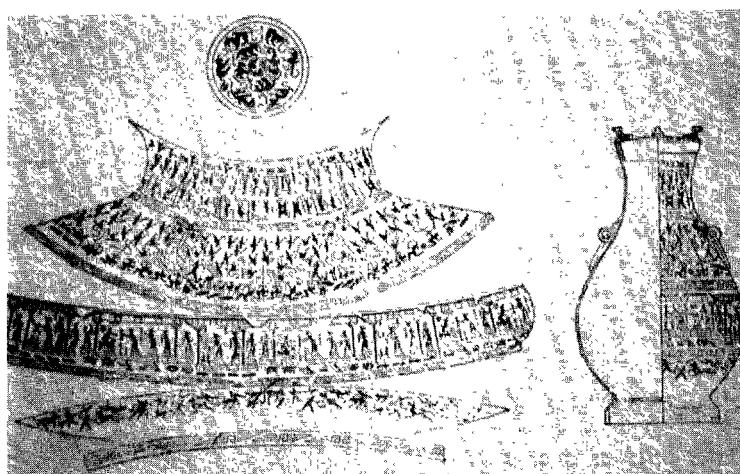


圖 15. 狹西省 凤翔高王寺 출토, 象嵌射宴壽의 문양 전개도,

기원전 5세기 후반



圖 14. 採桑紡 紋飾 문양 전개도
戰國 前期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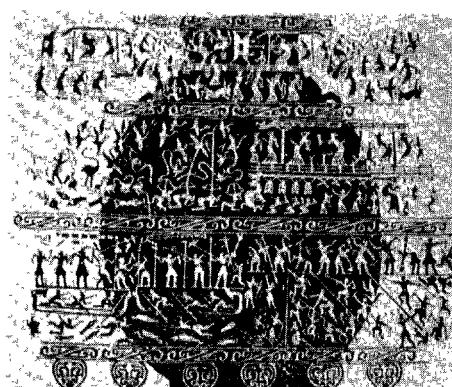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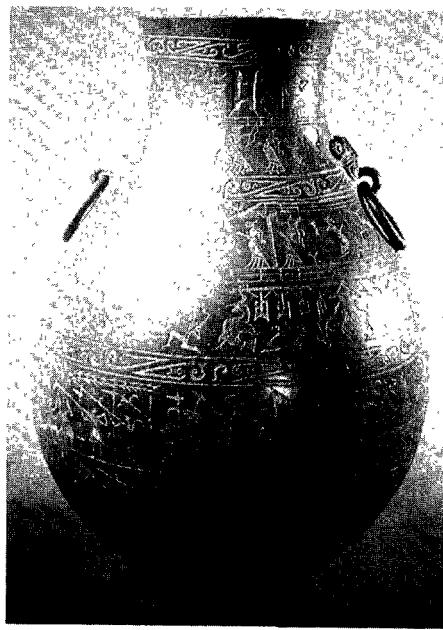


圖 16. 四川省 成都 百花潭 출토,
象嵌宴樂水陸功戰紋壺 및
문양 전개도, 기원전 5세기 후반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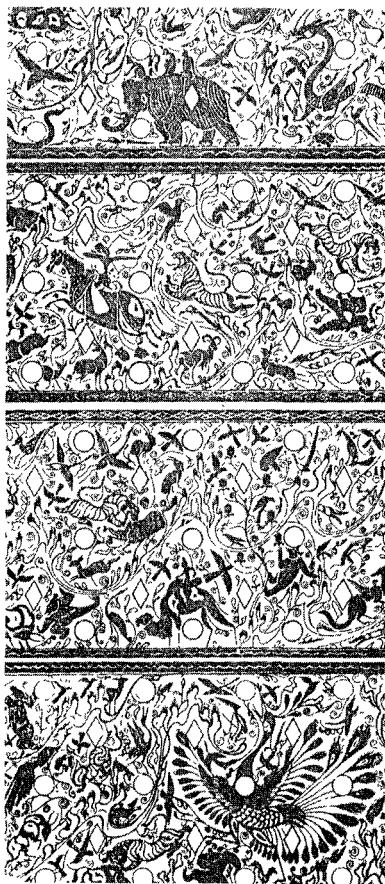


圖 17. 河北省 輝縣 琉璃閣 출토,
* 銅壺 잔편, 전국시대 말



圖 18. 金銀錯 狩獵文 銅車飾 및 문양 전개도
河北省 定縣 122號 漢墓 출토, 前漢代



圖 19. 黑地彩繪棺, 좌측면 그림, 湖南省 長沙
馬王堆 1號 漢墓漆豆, 前漢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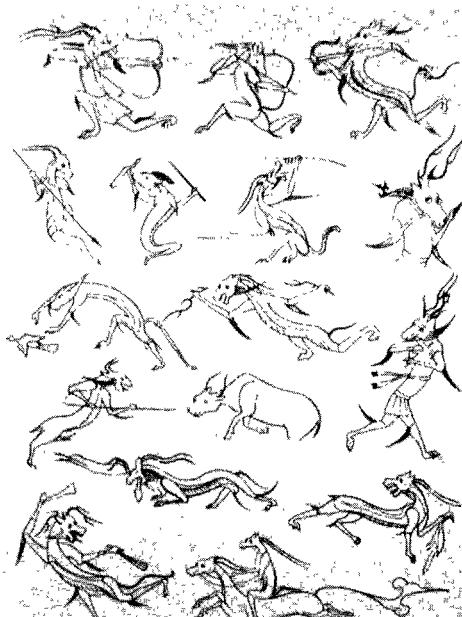


圖 20. 黑地彩繪棺의 동물화 모사도



圖 21. 傳 平양부근 樂浪 지방 출토 金錯狩獵文 銅車飾과 문양전개도,
東京藝大 소장(중요문화재). 漢代 1세기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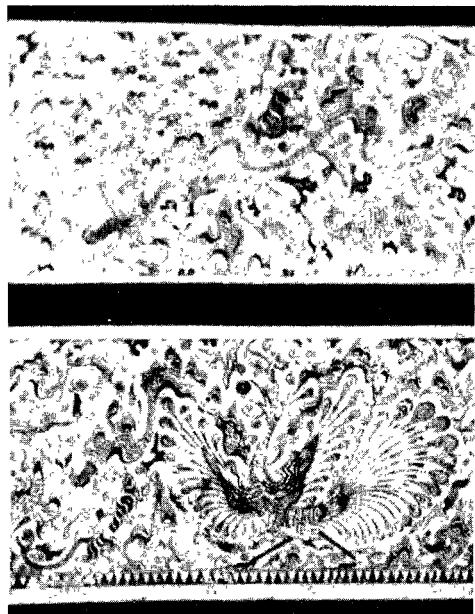




圖 22. 獵人張弓畫像磚 河南省
洛陽 東趙塗丘, 前漢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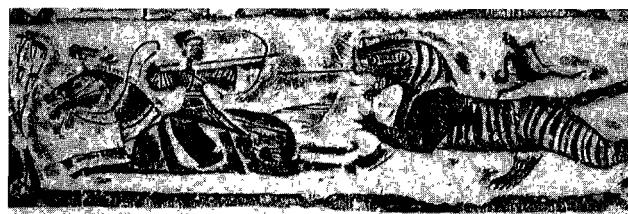


圖 23. 獵虎畫像磚, 河南省 禹縣塗丘, 前漢末～後漢初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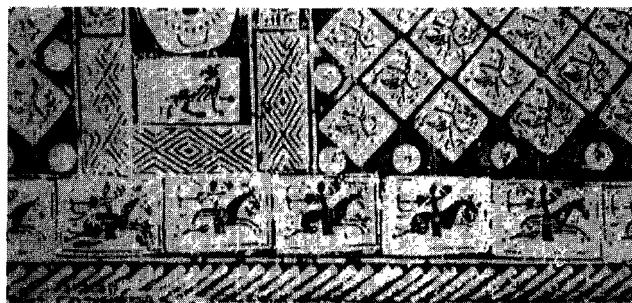


圖 24. 空心畫像磚, 洛陽 鄭州附近,
漢墓塗丘, 前漢末～後漢初



圖 25. 孝堂山 石祠 獵獵畫像磚,
孝堂山 石祠 西壁, 後漢初



圖 26. 敦煌 249窟狩獵壁畫,
(北坡局部), 西魏



圖 27. 敦煌 285窟
射牦牛(東披局部), 西魏



圖 28. 敦煌 285窟 五百強盜
成佛局部 狩獵(南壁 上卷), 西魏



圖 29. 日本 正倉院 南倉,
자단목 비파 摺面 狩獵圖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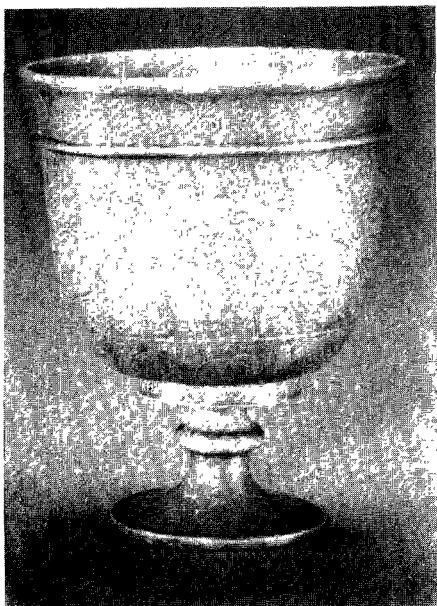


圖 30. 狩獵文 高足銀杯, 섬서성
西安市 南郊 何家村 墓
藏 출토, 섬서성 박물관, 唐



圖 31. 狩獵文 灰纈絹, 新疆, 吐魯番
阿斯塔那 출토, 唐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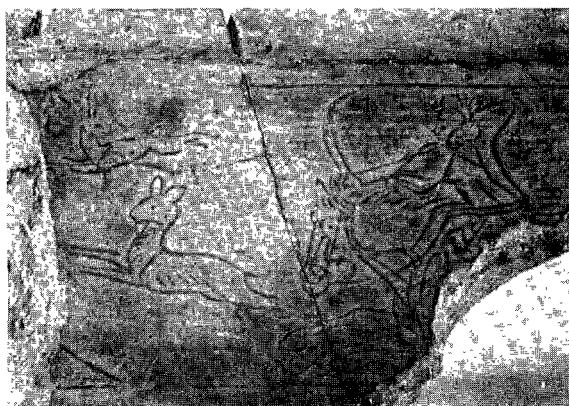


圖 32. 경주 龍輪寺址 출토 狩獵文 壺,
통일 고려시대



圖 33. 舞踊塚, 수령도(현 실서면),
中國 吉林省 집안현 如山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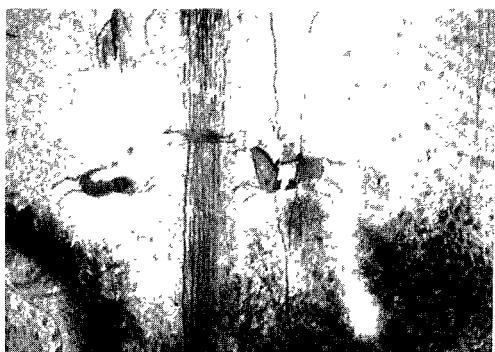


圖 34. 梅山畫 四神塚 수령도, 평안남도
용강군 대대면 매산리



圖 35. 長川 1號墳(前室 북벽)
중국 길림성 집안현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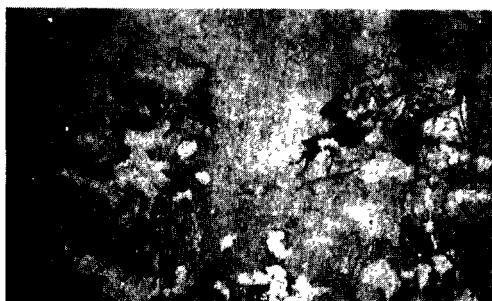


圖 36. 안악 1號墳(현실 서벽), 황해도
안악군 大遠面 山上里



圖 37. 藥水里 고분, 평안남도
江西郡 江西面 藥水里



圖 38. 덕흥리 고분 평안남도
대안시 덕흥리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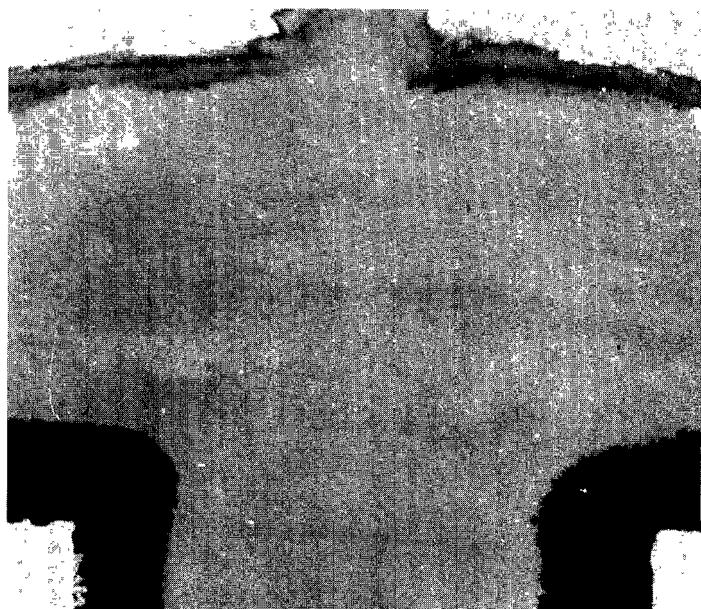
1991년도 교수별 연구작품



사람들.

한지 수묵, $158.5 \times 131\text{cm}$ 1991.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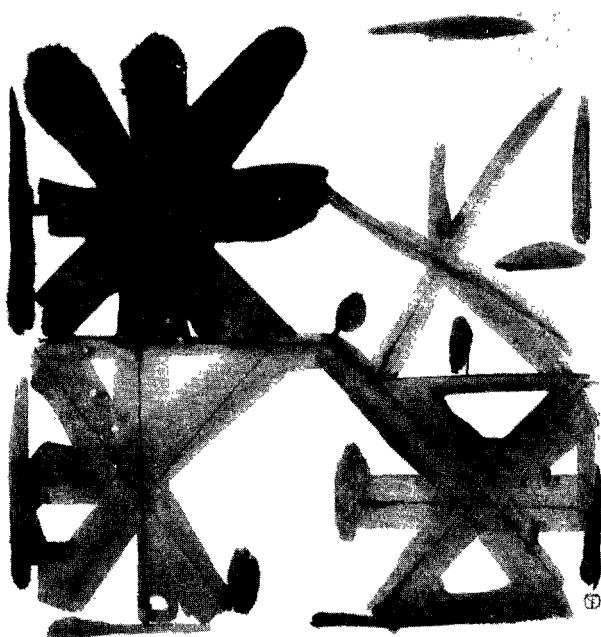
'91현대미술초대전 국립현대미술관
서세우 작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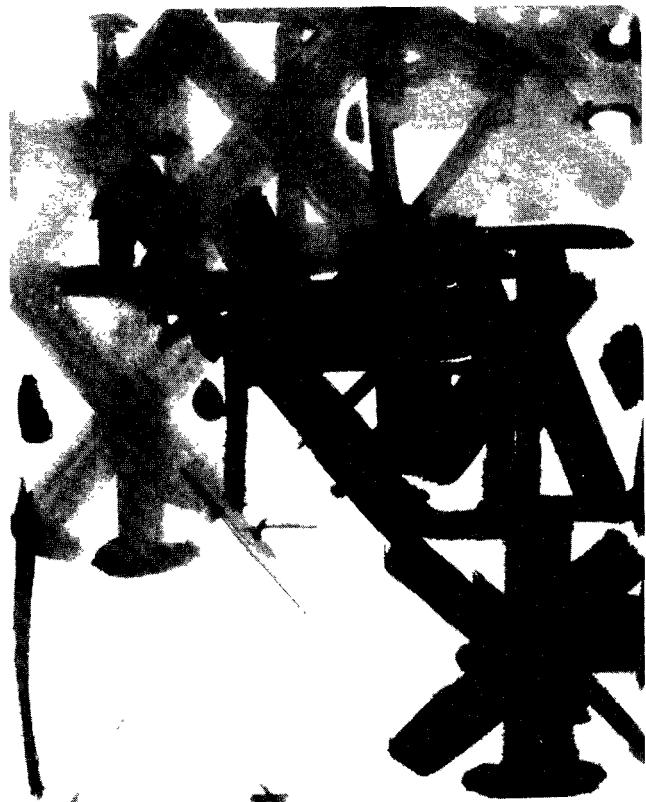
사람.

한지, 먹, 채색, $94 \times 107\text{cm}$ 1991

'91서울미술대전 서울시립미술관
서세우 작



陽地 924. 턱지 먹,
132×132cm 1991. 한국회화전,
서울갤러리 신영상 작



陽地 998. 닥지 수목 162×132 cm
1991 '91현대미술초대전,
국립현대미술관 신영상 작



잊혀진 것들.

한지, 먹, 채색, 180×120cm 1991
'91서울미술대전, 서울시립미술관
정탁영 작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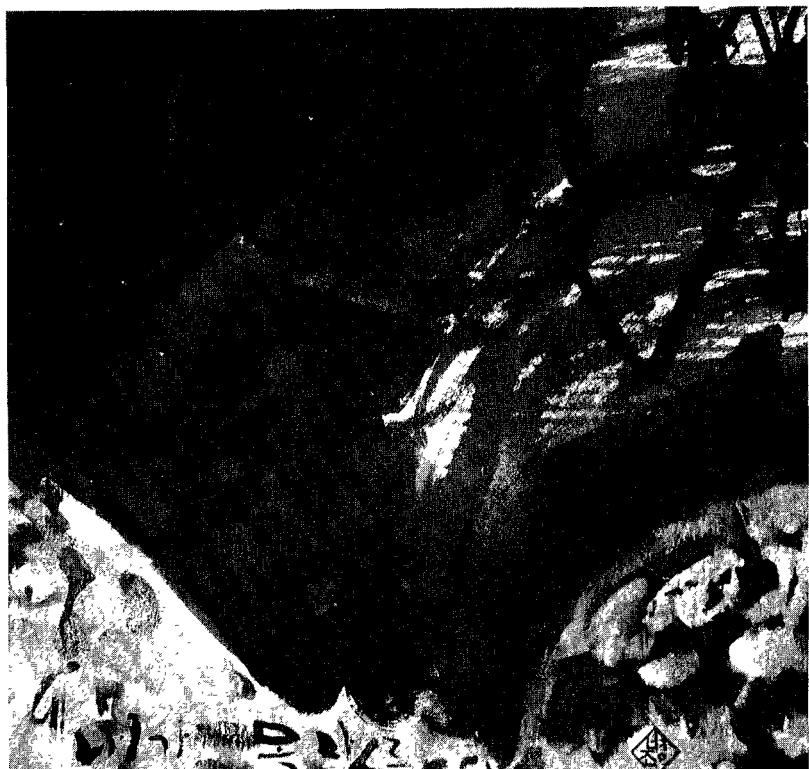
잊혀진 것들 31.

한지, 먹, 채색, 180×120cm 1991
'91현대미술초대전, 국립현대미술관
정탁영 작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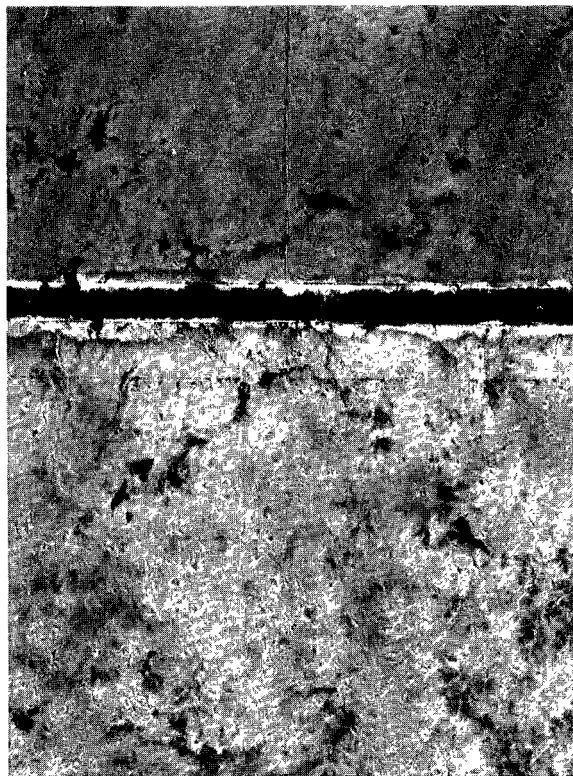
生命의 노래. 한지, 먹, 채색 120×165cm 1991

'91현대미술초대전, 국립현대미술관 김병종 작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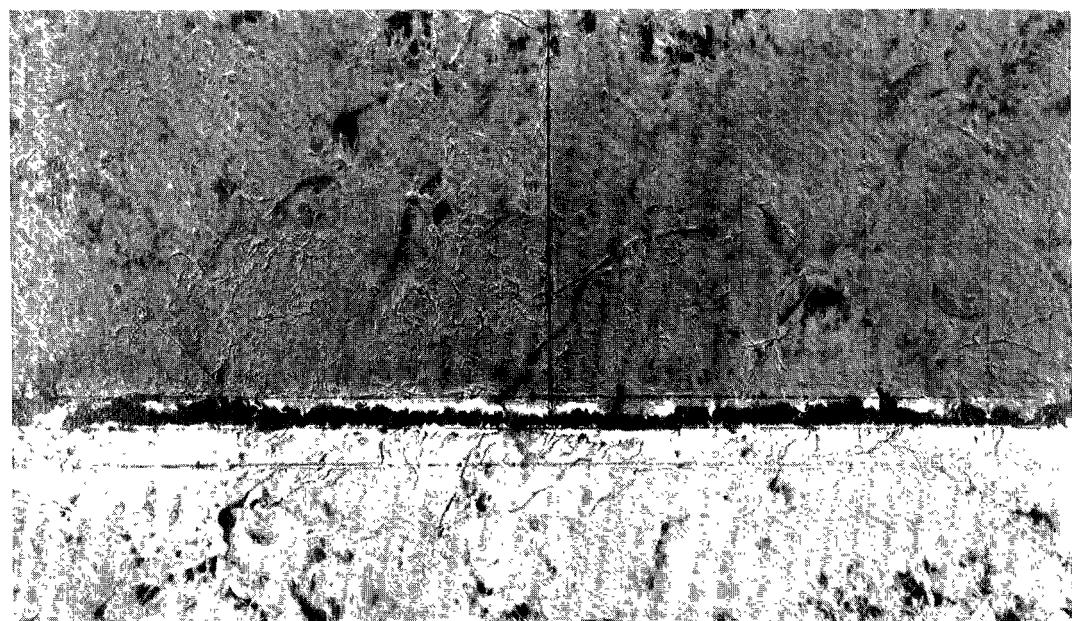


이름과 �ック - 내가 목마르다. 한지, 먹, 채색, 85×79cm 1991

'91화랑미술제 예술의 전당 김병종 작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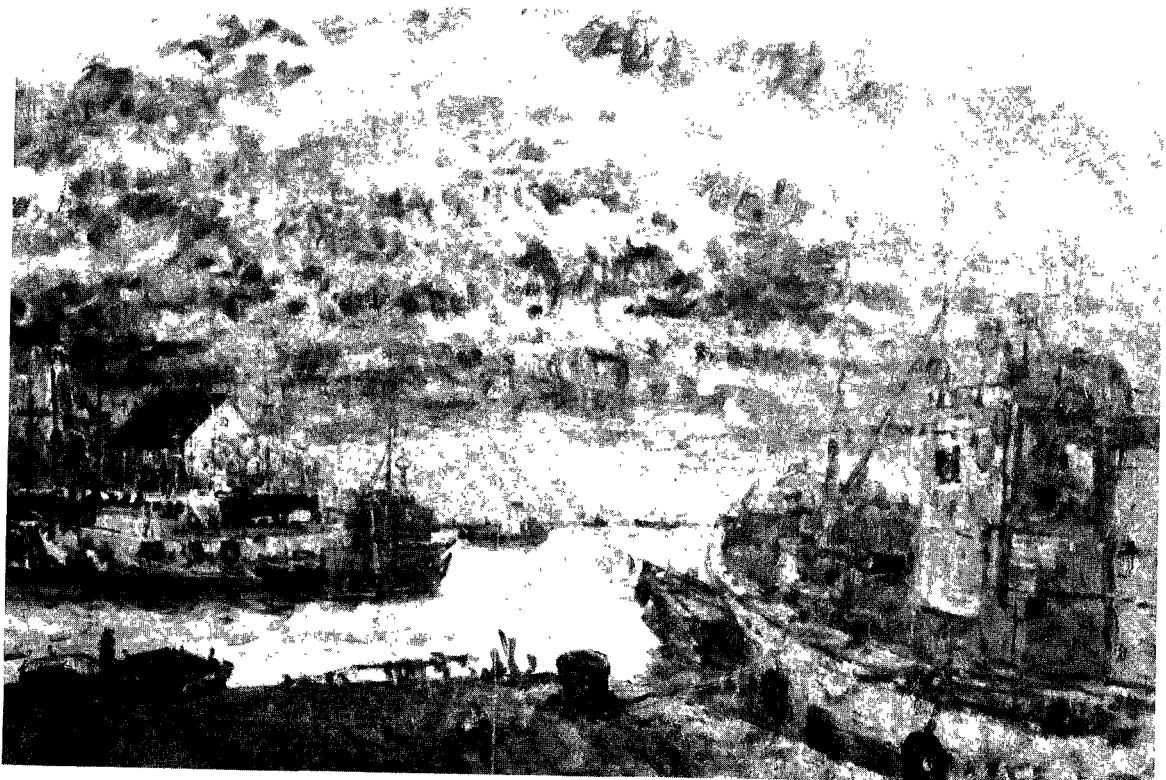
默考(Meditation) No. 91033. 120×90cm
Best Fiber on Canvas 1991 정창섭 작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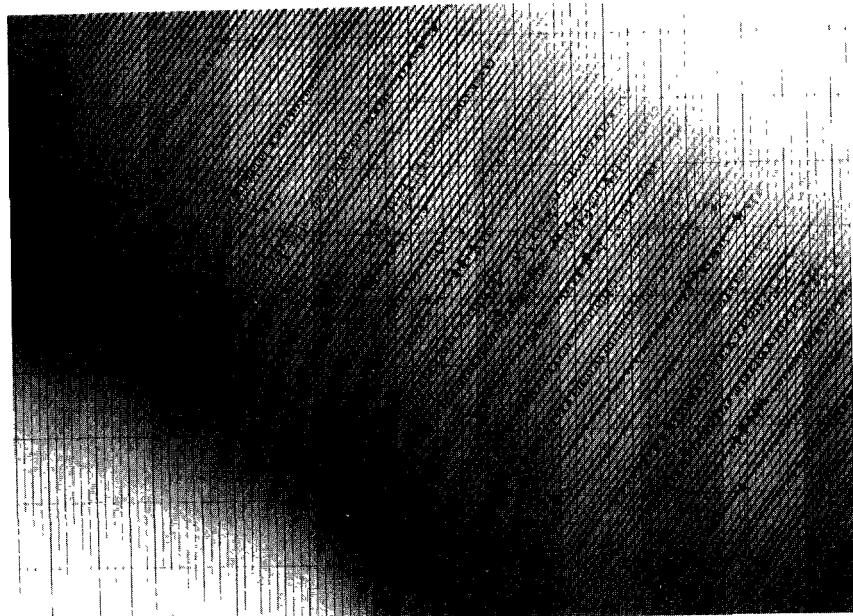
默考(Meditation) No. 91028. 120.5×70.5cm Best Fiber on Canvas 1991 정창섭 작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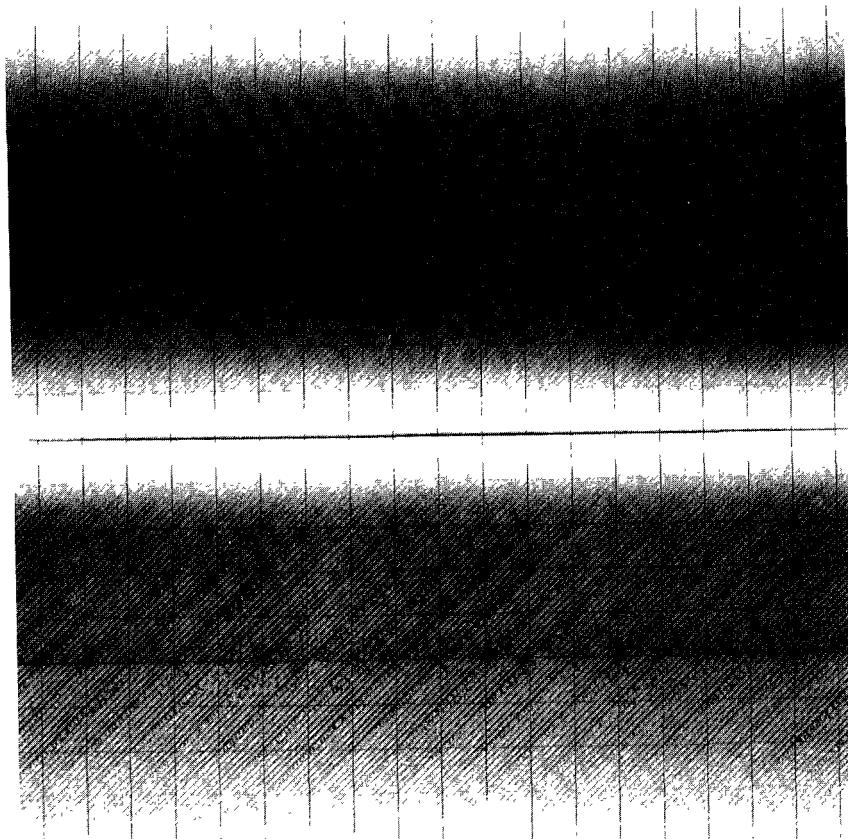
붉은 탁자위의 정물. 캔버스위에 유채 91×91cm 1991 김태작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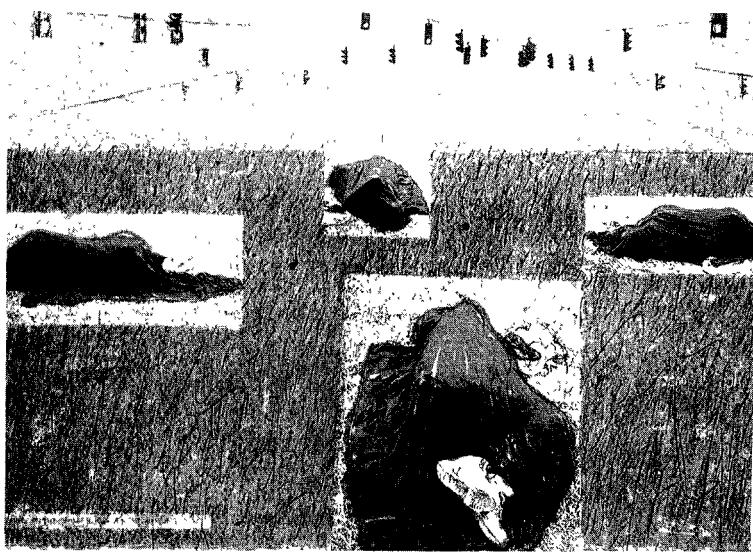
속초항에서. 캔버스위에 유채 162×112cm 1991 김태자



Light 91-12. 캔버스위에 아크릴릭 160×220cm 1991 하동철 작



Light 19-15. 캔버스위에 아크릴릭 180×180cm 하동철 작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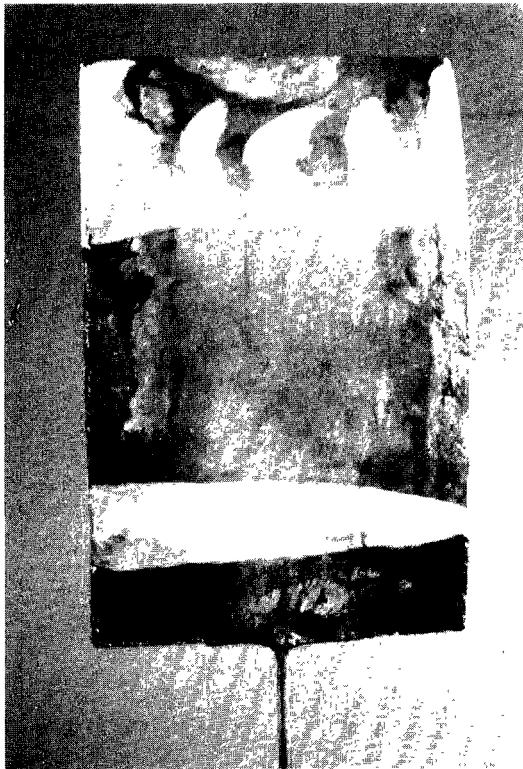
황야에 누워.

Photo-Litho Serigraph 75×56cm 1989 한운성 작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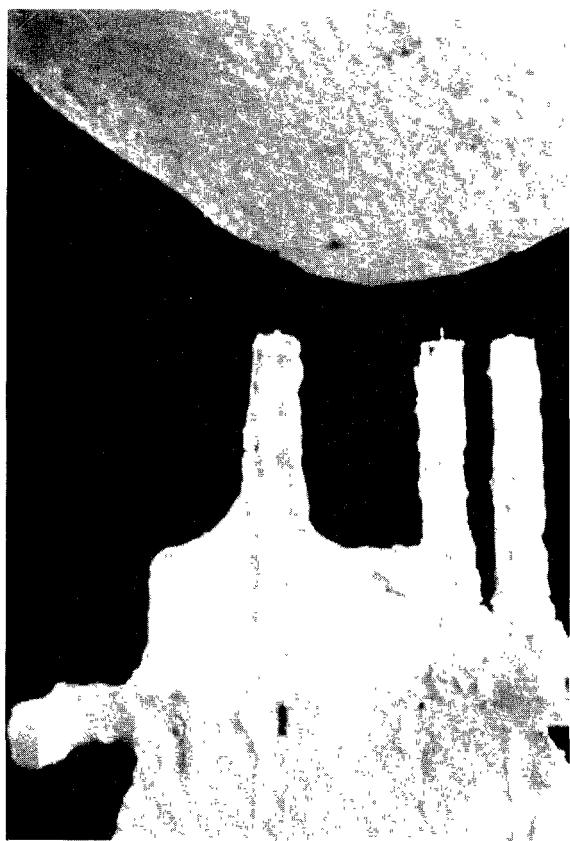


신호등이 있는 구성.

100×100cm Acrylic on canvas, 1990 한운성 작



像 91. 동판 45×15×90cm
최의순 작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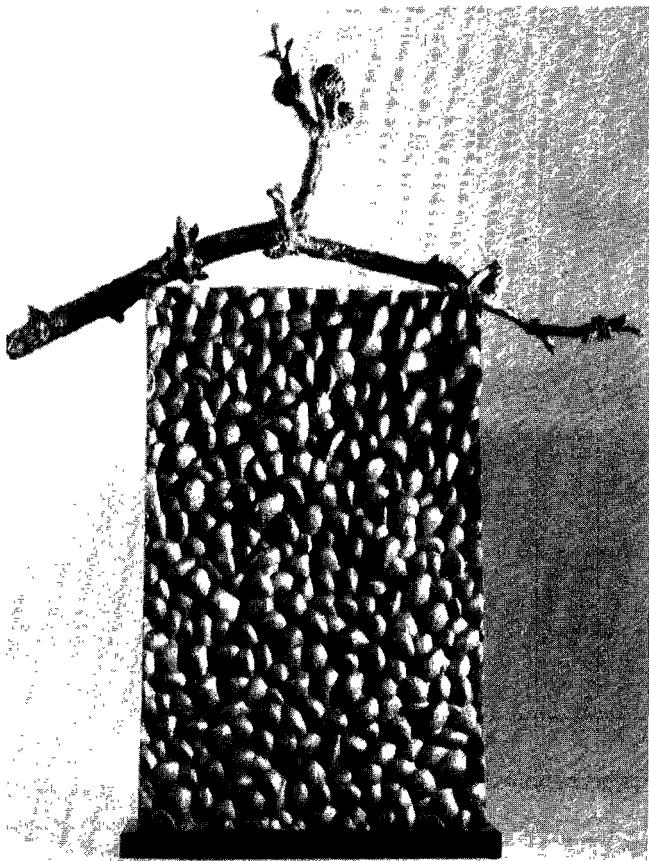
月光曲 91. 챕고 120×100×100cm
최의순 작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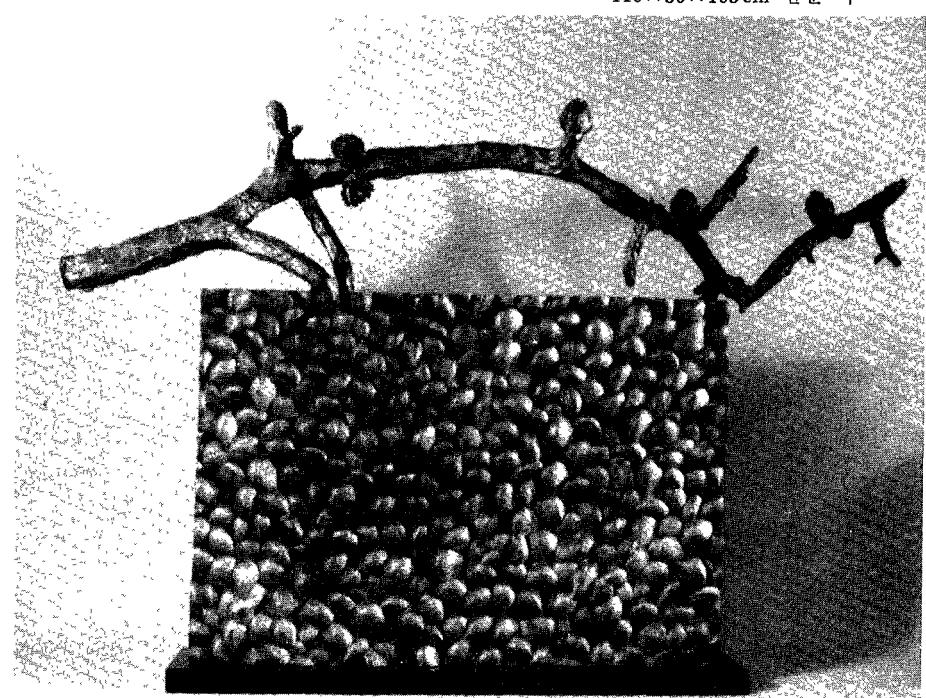
신의 소리 (브론즈) 30×28×105 cm
서울조각회 출품 최종태 작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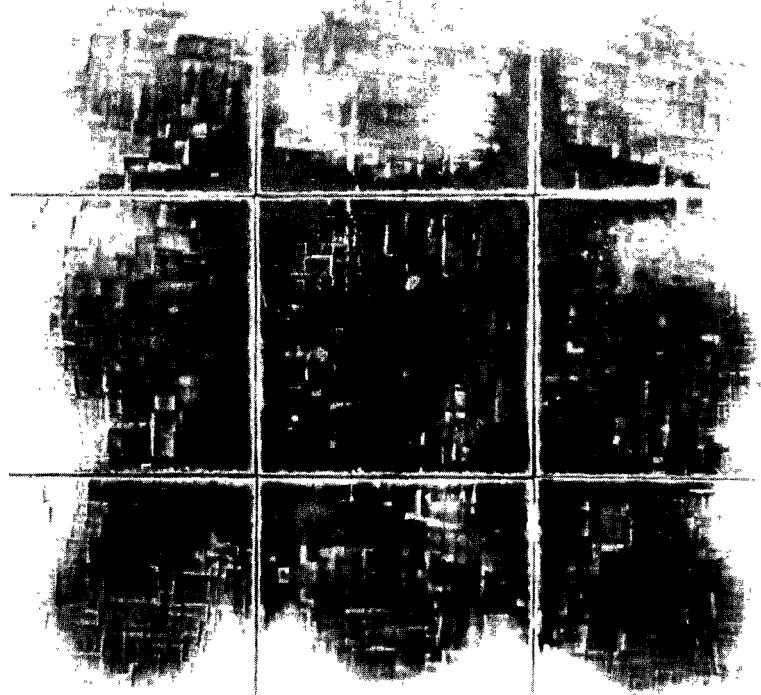
얼굴 (브론즈) 26×49×72cm FIAC 출품
최종태 작



소리—삶의 기억 속에서 (브론즈)
77×25×140 cm 전준 작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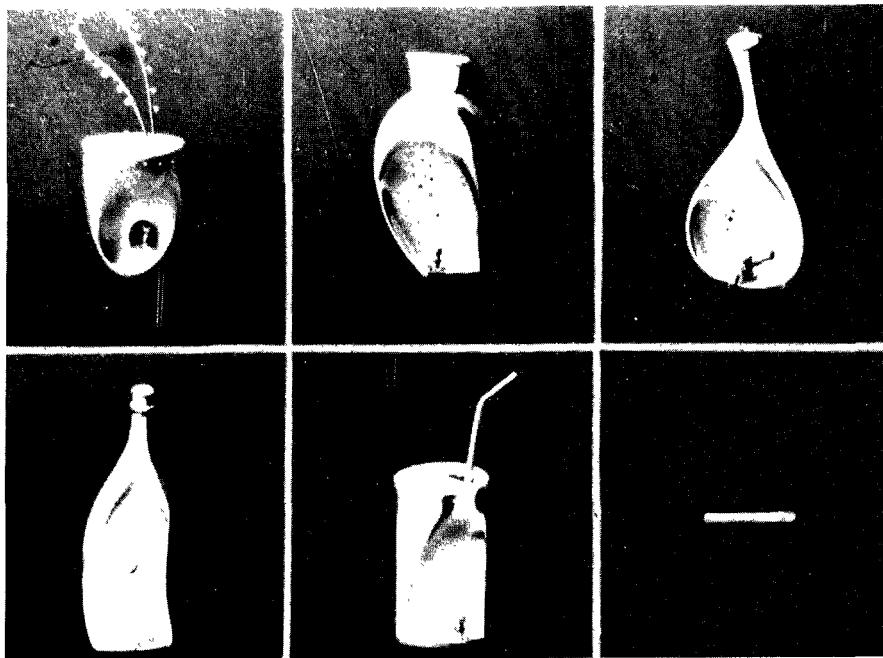
소리—삶의 기억 속에서 (브론즈)
110×30×105 cm 전준 작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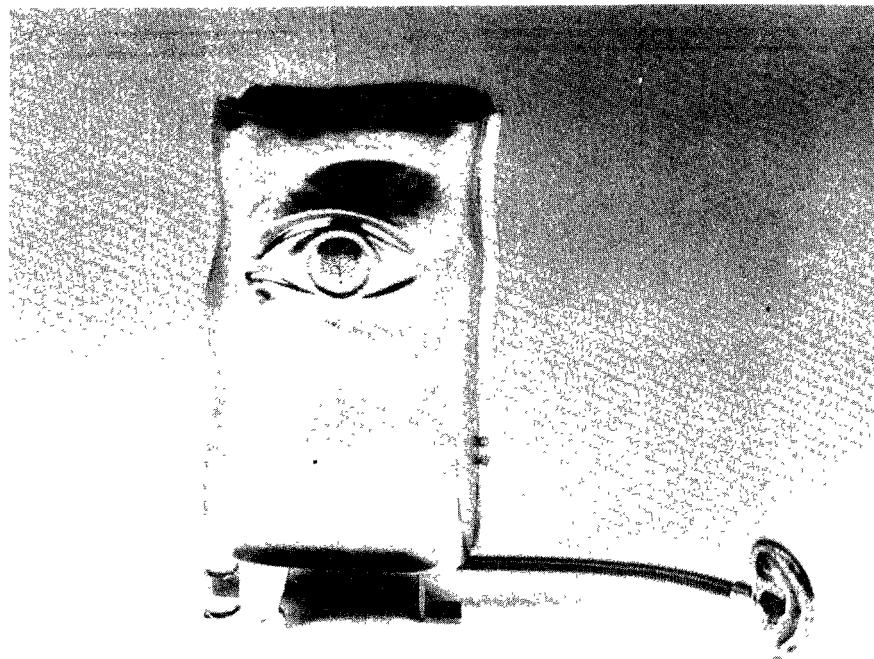
여름의 축제. 점토 80.6×80.6 cm
'91서울현대도예비엔날레 서울시립미술관 권순형 작

12월의 축제. 점토 80.6×80.6 cm
'91현대미술초대전 국립현대미술관 권순형 작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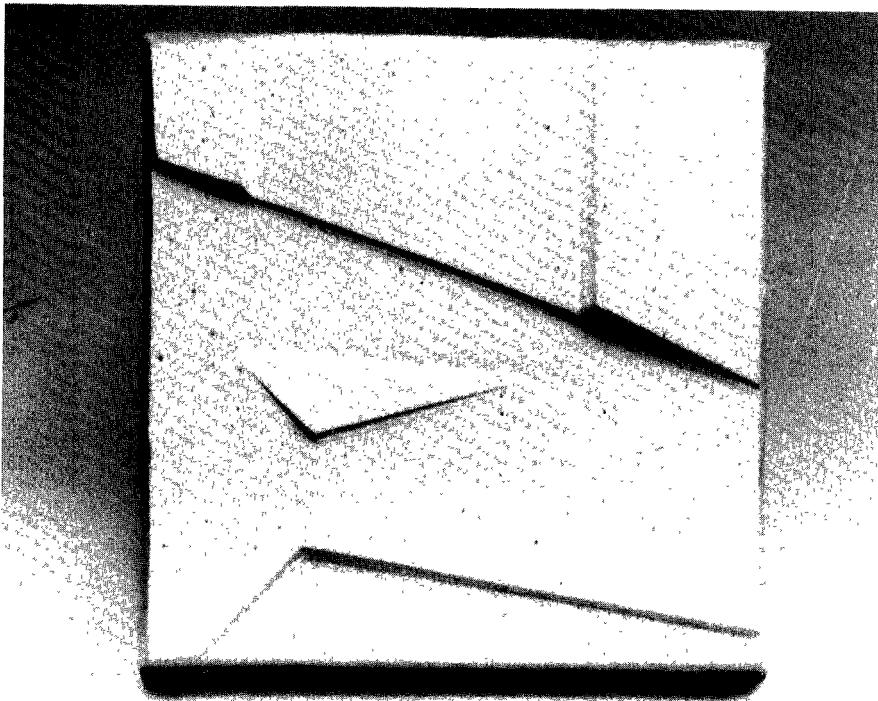




아리랑 아리랑 물아라리요. 은, 금 80×120cm 1991
 '91현대미술초대전 국립현대미술관 강찬규 작



그 소리를 가만히 들여다 봅니다. 배동, 황동 23×6×21cm 1991
 '91서울공예대전 서울시립미술관 강찬규 작



자연-음양. 점토 34×34×4 cm

'91서울현대도예비엔날레 서울시립미술관 신풍식 작

자연-생명력. 점토 46×46×42cm

'91서울공예대전 서울시립미술관 신풍식 작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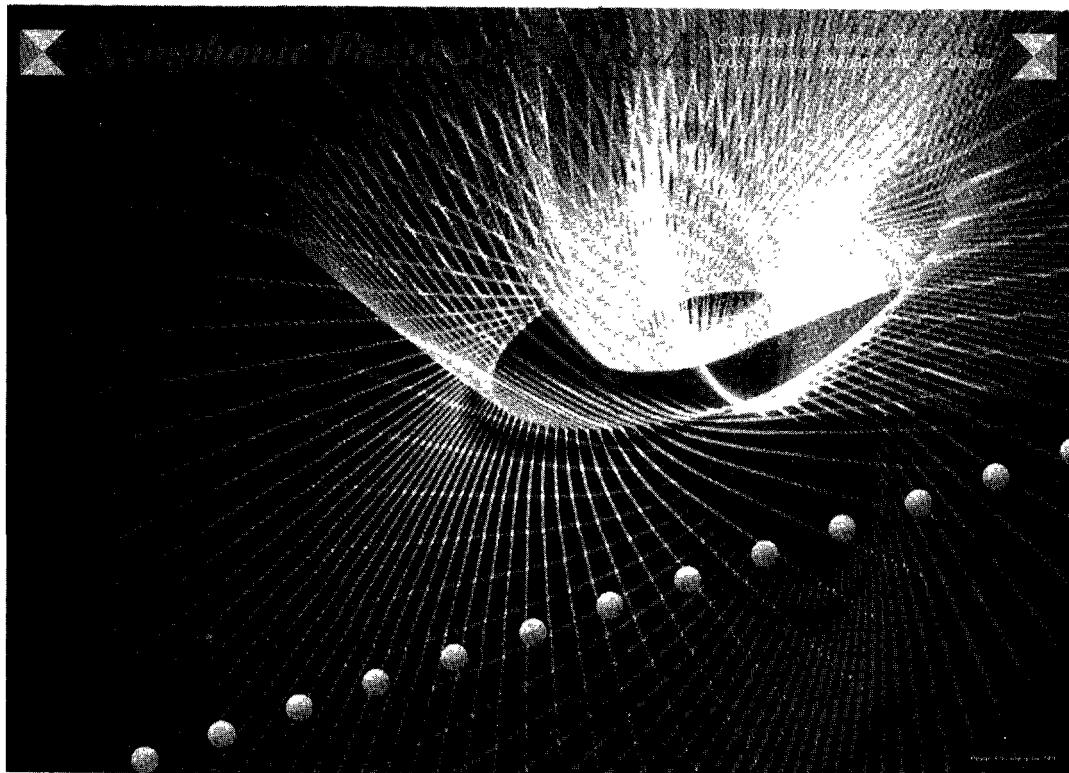




다듬어진 산. 절토 36×27×50cm
'91서울공예대전 서울시립미술관
장수홍 작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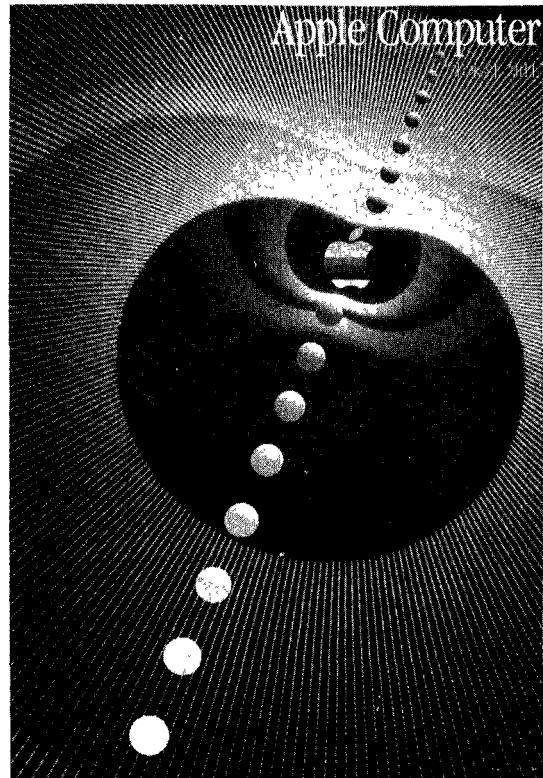


산. 절토 72×30×53cm)
'91현대미술초대전 국립현대미술관 장수홍 작



Symphony Fantagia "Korea" 594×841mm

제 26회 산업디자인전 1991 조영제 작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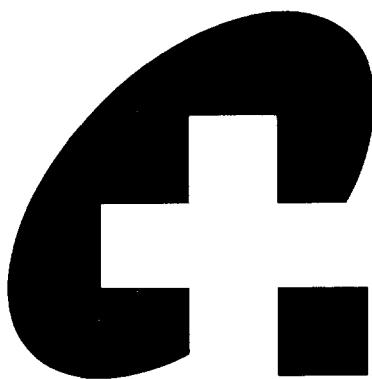


Apple Computer 594×841mm

제 17회 KSVD전 1991 조영제 작



주식회사 서울방송 C.I.P. 양승준 작



주식회사 서울방송 C.I.P. 양승준 작

보훈병원 및 한국보훈복지공단 C.I.P. 양승준 작

